

1-25-2003

기독교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 개발

Moon Sig Choi 최문식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최문식, "기독교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3.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DUCATIONAL MINISTRY PROGRAM TO IMPROVE CHRISTIAN SOLDIERS' IDENTITY

written by

MOON SIG CHOI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o Jin Jun

Hea Kwan Han

Seyoon Kim

January 25, 2003

**AN EDUCATIONAL MINISTRY PROGRAM TO
IMPROVE CHRISTIAN SOLDIERS' IDENTIT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OON SIG CHOI

JANUARY 2003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 개발

이 논문을 풀려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전 호 진 교수

최 문 식

2003년 1월

Abstract

An Educational Ministry Program to Improve Christian Soldiers' identity

Moon Sig Choi

Doctor of Ministry

200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an attempt to study of developing educational ministry program in order to improve Christian self-identity in the Armed Forces. Establishing the personal concept of Christian self-identity in a unique organization as in the Armed Forces helps individuals to adapt to the military society and gives great motive for military ministry. Military ministry also contributes to nationwide and global ministry, and developing an educational program will be significant to enhance Christian self-identity.

For such study, the pape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will discuss necessity, objective, issues related to the study and thesaurus.

The second chapter will deal with theoretical aspect,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self-identit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ulture, understanding the youth Christian soldiers as subject of Christian training, and the Christian educational objectives.

The third chapter will describe the methodology of the Christian soldiers, and the fourth chapter will present the actual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and methods to enhance th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achiev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final chapter will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study, and present

감사의 말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난 18여 년 동안 군 선교 사역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인교회와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김세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전호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항상 후원해 주신 아버지 최해일 목사님과 이경자 어머니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신 장인이신 박치복 목사님과 장모님이신 윤계중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박성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을 선사해 주는 사랑스런 두 딸 정민, 수민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동안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2003년 1월

최문식

목 차

| | |
|---------------------------------|----|
| Absract | ii |
| 감사의 글 | iv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연구의 동기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6 |
| 제 1 절 자아개념 | 6 |
| 1. 자아개념의 정의 | 7 |
| 2. 자아개념의 형성과정 | 12 |
| 3. 자아개념과 인간행동과의 관계 | 14 |
| 제 2 절 자아개념에 관한 기독교적인 이해 | 16 |
| 1. 성경적 자아개념 | 16 |
| 2. 신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 17 |
| 3. 기독교 신앙과 자아개념 확립 | 18 |
| 제 3 절 군대 문화의 특성 | 20 |
| 1.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 20 |
| 2. 청년 문화와 군대 | 22 |
| 제 4 절 기독교 교육 대상으로서의 청년 이해 | 23 |
| 1. 교육과정 속의 청년 이해 | 23 |
| 2.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가능성과 과제 | 27 |
| 제 5 절 기독교 장병교육의 목표 | 31 |
| 1. 일반 교육의 개념과 목표 | 31 |
| 2. 기독교 교육의 개념과 목적 | 32 |

| | |
|-----------------------------|----|
| 3 인간화의 장으로서의 기독교 장병교육 | 35 |
| 제 3 장 실제적 방법론 | 40 |
| 제 1 절 기독교 장병교육의 방법 | 40 |
| 1.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 교육 | 40 |
| 2.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 | 42 |
| 제 2 절 예전과 기독교 장병교육 | 48 |
| 1. 예배의 교육적 의미 | 48 |
| 2. 말씀 중심의 예배 | 52 |
| 3. 성례 중심의 예배 | 60 |
| 4. 발전적 제언 | 63 |
| 제 3 절 주일학교와 기독교 장병교육 | 67 |
| 1. 주일학교의 중요성 | 67 |
| 2.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과정 | 69 |
| 3. 발전적 제언 | 72 |
| 제 4 절 인격지도와 기독교 장병교육 | 78 |
| 1. 일반적 고찰 | 78 |
| 2. 발전적 제언 | 80 |
| 제 5 절 상담에 의한 기독교 장병교육 | 82 |
| 1. 교육적 상담의 필요성 | 82 |
| 2. 군 현장에서 교육적 상담 | 84 |
| 3. 발전적 제언 | 86 |
| 제 4 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92 |
|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 | 92 |
| 제 2 절 프로그램 내용 | 96 |
| 제 3 절 프로그램 시행 | 99 |
| 1. 절차 | 99 |

| | |
|---------------------------|-----|
|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 100 |
| 3 프로그램 평가 | 101 |
| 제 4 절 연구 결과 | 105 |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 118 |
| 제 1 절 논 의 | 118 |
| 1. 기독교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 | 118 |
| 2. 종합적 논의 | 119 |
| 제 2 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20 |
| 제 3 절 결론 및 제언 | 121 |
| 부 록 1 : 설문조사 | 124 |
| 참고문헌 | 125 |
| Vita | 130 |

표 목 차

| | |
|--|-----|
| 〈표 1〉 실험, 통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결과 | 101 |
| 〈표 2〉 하위 차원 척도의 문항 번호 | 103 |
| 〈표 3〉 각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 | 103 |
|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기술 통계량 | 106 |
| 〈표 5〉 하위 척도별 사전검사 결과 | 107 |
| 〈표 6〉 실험집단의 하위 척도별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한 paired-t 검증결과 | 108 |
| 〈표 7〉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109 |
| 〈표 8〉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112 |
| 〈표 9〉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114 |
| 〈표 10〉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11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 111 |
| 〈그림 2〉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 113 |
| 〈그림 3〉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 115 |
| 〈그림 4〉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 117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한국 교회의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젊은 청년층의 감소는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군대라는 특수한 장소로 우리의 눈을 돌려본다면 쉽게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정상적인 건강한 청년이면 누구나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군대이다. 비록 통제된 조직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을 받지만 단체와 조직사회를 배우고, 책임과 충성심, 인내심과 투지력, 자기 극복의 능력 등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특히 인간은 삶과 죽음의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종교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조직(公組織)인 군대를 복음·선교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민족을 복음화하라는 지극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현재는 ‘비전2020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와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례자에 대한 양육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제대할 때가 되면 대부분이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민간교회와 연결이 되더라도 그들이 복무하는 2년 동안 아무런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비전2020운동의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군대 내의 결신자를 주거지에 따라 민간 지역교회에 분배하여 장병을 위탁받은 민간교회가 양육을 맡게 되고 그 장병이 제대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간교회의 양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관심의 수준일 뿐이다. 그러므로 군대 내부에 있는 교회에서의 양육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몇몇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 후의 시간을 이용해 공과공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은 단지 성경공부나 교리공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사병들 대부분이 초신자 수준이며, 군인교회의 특수성에 의해 한 교단의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으로는 장병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인간의 성장발달 이론에 근거한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군대는 하나의 중요한 인간 교육의 장이 된다. 군대란 항상 전쟁을 전제로 한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죽느냐, 죽이느냐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장이기에 그 성격상 일차원적 사고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인들도 일정기간의 군대생활을 마치면 다시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사회 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군의 일차원적 역할관계 틀 속에 그대로 묶어 둘 수는 없다. 군대는 기능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적의 중요성만큼 '인간, 특히 젊은이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으며, 그 안에 내재된 비인간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젊은이들의 터전이며, 그들의 삶이 이모저모로 부정되고 다시 형성되는 엄숙한 교육의 장임을 긍정하게 된다.

군인들은 인생주기에서 보면 청년기에 속한 집단이다. 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름없이 발달했고, 인지 능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미 획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은 가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검증하고 과학적, 객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분석과 종합, 연역과 귀납, 가정과 실증 등에 의해 청년들은 사고할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능력의 획득은 청년들에게 합리성, 논리성 추상성 등의 농도를 짙게 하며, 사고의 다른 방향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한다.

청년기의 발달의 특성 중 또 하나의 중요 특징은 도덕성의 발달이다. 이 시기에는 도덕 판단 기준을 동료집단에서 구하며, 행위에 대한 상벌에 관계없이 상대적 동

기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율적 도덕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시기의 도덕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소신껏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도덕성 계발을 위한 과제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기술을 갖춘 인간이면서, 동시에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도 건전한 인격과 조화있는 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여기에 개체성과 공동체성의 조화 문제가 대두된다.

위에서 살핀 대로 청년기는 발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 속에서도 부조화의 요인을 안고 갈등하는 성장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서 이들이 군대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집단생활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이중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가 지닌 특성과 거기 속한 젊은이들의 삶의 정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 장병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종파적 교리 전달이나 형식적 종교 의식만 집행하는 데 국한될 수 없다. 장병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해 있는 조직 구조 속에서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과,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인류 복지 사회 건설에 평화의 역군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역사 형성의 주체자로서의 존재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의 빛 안에서 확신케 하는 일이 기독교 장병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기독교 장병들을 위한 교육목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한 가지는 선교적 측면에서 본 민족 복음화의 장이라는 관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군대를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본 인간 교육의 장이라는 인식이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여 기독교 장병 신앙교육의 방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대 내 여러 종교활동, 교육활동, 인격지도교육, 상담, 방문 등 각종 군종활동 프로그램 모두가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게 시행되게 하여 효과적인 기독교 장병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에서 시행되는 군 선교 현장이 전도의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할 한다. 하지만 낙관만 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지금 군대에서는 타종교들도 선교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전도함으로 군대는 종교전쟁터이다. 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연대급 교회는 물론이고 여단급 군인교회에도 군종목사가 보

직되어 있지 않아서 민간 목회자들이 설교만을 지원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1년에 20여만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기독교 장병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나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연구자가 군 선교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군 선교를 전개하여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고 내부적으로 실속있는 군인교회 교육목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첫째, 기독교 장병들의 기독교적 자아개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아개념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이뤄진다. 먼저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다루었다. 3장은 기독교 장병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4장은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고 5장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함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독교 장병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실시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병들은 비 참가 장병에 비해 기독교적 자아 동일성이 증가할 것인가?

둘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병들은 비 참가 장병에 비해 기독교적 자아긍정성이 증가할 것인가?

셋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병들은 비 참가 장병에 비해 기독교적 자아수용성이 증가할 것인가?

넷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병들은 비 참가 장병에 비해 기독교적 자아행동성이

증가할 것인가?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집단과 비 참가집단 간에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기독교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절차를 통해서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이런 유형이 모든 군 교회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교회의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군종목사가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 군종병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도 있다. 장교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장병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도 있다. 이러한 많은 차이점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형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하였고 각 교회에 적용될 때는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목회의 범위는 병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군대에는 여러 계급과 연령이 있으나 의무적으로 복무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병들이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자아개념

심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개인행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자아라는 개념이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James가 그의 저서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 of Psychology)에서 처음 자아(Self)라는 개념을 규정한 이후 자아개념은 개인의 성격을 논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¹⁾ 그러나 실증적 연구수행의 어려움이 20세기 전반의 심리학 풍토의 과학적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후 Hilgard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반하여 자아라는 개념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인간 행동의 기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아개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²⁾ 이 때부터 자아개념은 심리학의 주요 중심 영역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자아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실증적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상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여 자아, 자가지각, 현상적 자기, 자기태도, 자아개념 등과 같이 쓰인다. 그것은 학자에 따라 의도하는 것이 다르고 그 접근방법에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에 관한 이론은 대체적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현상학적 이론의 영향을 받아 자기이론(Self Theory)으로 발전되어 왔다.

1) W. James, Principles of Psychology, authorized Unabridged., Vol. 1 (Dover Publications Inc., 1950), 42.

2) E. R. Hilgard, "Human Motives and Concept of the Self," The American Psychologist 4, (1948), 9.

1. 자아개념의 정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훌륭하며 자신감에 가득 찬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만만하여 그의 에너지는 항상 발전과 향상을 위한 강한 응집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자아개념에 관해서는 많은 정의가 내려져 왔으며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ogers는 자아와 자아개념 또는 자아구조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자아개념이란 감지되어질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지각의 조직된 형태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은 자기의 특성, 능력에 대한 지각, 타인 또는 환경과 관계지은 자아의 지각이나 의미, 대상과 경험에 연합된 것으로 지각된 가치의 태도 그리고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지각된 목표와 이상 등의 요소로서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³⁾ 이것은 자기가 느껴서 알 수 있는 자기에 관계되는 모든 지각의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자아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Byrne 역시 Rogers와 유사하게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행동, 능력, 신체 및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치에 관련되어 지니고 있는 태도, 신념, 판단 및 가치 전체의 집합체로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⁴⁾

Purkey는 자아개념을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견해들의 총체로서 누적의 형태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제 신념 체계라고 정의하고 자아를 역동적이고 학습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자아개념은 커다란 나선형 모양이고 커다란 나선형의 모양은 작은 나선형들이 모여서 된 것이며, 이 작은 나선형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데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중요한 자아개념은 중심부에 위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바깥쪽에 위치하며, 중심부에 있는 자아개념은 바깥쪽에 있는 자아개념보다 변화에 매우 저항적이고, 작은 나선형 모양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⁵⁾ Shavelson은 자아개념을 단

3) C. Rogers,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61), 50-57.

4) B. M. Byrne, "The general academic self-concept monological network : A review of construct validation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84), 427-456.

5) W. W. Purkey, A. Raheim and B. N. Cage, "Self-concept as a learner: Aan overlooked part of

일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몇 개의 군 또는 하위영역으로 분할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⁶⁾ Sullivan은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지지하면서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들과의 인간관계에서보다 모자간의 관계가 어린이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⁷⁾

Shavelson은 자아개념을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으로 대별하여 학문적 자아개념을 교과에 관련된 자아개념과 인성 자아개념으로, 비학문적 자아개념을 사회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자아개념으로 나누었다.⁸⁾ 이들은 이러한 자아개념의 구조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1) 자아개념은 조직되거나 구조화된 것이다. 즉, 자아개념은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된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단순한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되고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2) 자아개념은 다면적이며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 채택된 특정한 면이다. 즉, 자아개념은 학문적 능력, 사회적 위치, 정서적 상태, 신체적 능력 등 다면적이다.

(3) 자아개념은 위계적이다.

(4) 상위에 있는 일반 자아개념은 안정성이 있다.

(5) 개인이 유아로부터 성인으로 발달함에 따라 다면성이 증가해 간다.

(6) 자아개념은 학업성취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Shavelson이 제시한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자아개념

공부 전반에 관한 자아 : 모든 교과목에 대한 공부에 관계된 모든 지각

특정 교과에 관한 자아 : 국어, 수학 등 특정 교과에 관련된 자기의 지각

(2) 사회적 자아개념

또래와의 관계 자아 : 급우 및 친구와의 관계 지각

중요 인물과의 자아 : 부모, 교사 및 이와 유사한 인물과의 관계 지각

self-concept theory."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1983), 52-57.

6) R. J. Shavelson, J. J. Hubner and G. C. Stanton,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6), 407-420.

7) H. S. Sullivan,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J. A. Norton, 1959), 213-250.

8) Ibid., 421-441.

(3) 정의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 : 정서적 반응성, 적응성에 관한 지각

성격적 자아 : 이상적, 도덕적 성격에 관한 자아

(4) 신체적 자아개념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아 : 몸집, 생김새, 외모 등에 관한 지각 내용

신체 능력에 관한 자아 : 근력, 완력과 같은 신체적 기능에 관한 지각

가. 자아관념(self-ideas)

자아는 또한 일련의 독특한 관념들을 가지며, 이러한 관념들은 자아개념의 중핵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들의 체제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규정한다. 사람들이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감각적 자료를 받아들여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이다. 감각적 자료에 부여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들이다. 어떤 자료가 원자료 그대로 해석되지 않은 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다. 받아들여진 자료들은 개인이 발전시킨 자기에 관한 관념이나 개념의 전체 체계 속에 통합된다.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자료에 기초하여 자신에 관한 결론을 끌어내며, 자신을 추상적 용어로 보기 시작한다. 어린이나 성인이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람직하지 않게 형성하기 쉽다. 예로서, 많은 연구들은 어린이나 성인들이 뚱뚱한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부여하기 쉽다.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러한 주위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되는 특성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기 시작하는 경향은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나, 신체장애자, 또는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에게서 특히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더 어려움을 갖게 된다.⁹⁾

9) Donald W. Felker,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 김기정 역, (서울 : 문음사, 1995), 19.

나. 자아태도(self-attitude)

자아개념의 또 다른 측면은 자아태도이다. 개인은 지각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형성한다. 개인은 환경을 지각하고 이 지각들로부터 자아에 대한 내면적 생각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내면적 생각으로부터 다시 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태도를 발달시킨다. 사람들은 태도를 가지며, 자신을 그 태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들의 독특한 체제는 자아개념의 자아태도 측면을 구성한다. W. C. Morse와 G. M. Wingo에 의하면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인 색조를 가진 관념”¹⁰⁾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대부분의 태도는 주체-객체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인 색조를 가진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자아태도는 내부 지향적인 독특한 태도이다. 이 자아태도는 그 태도를 느끼거나 표현한 사람, 즉 주체와 태도의 대상인 객체가 일치한다. 이러한 자아태도는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태도에 의해서 일어난 정서는 특히 강한 힘을 가진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대한 태도를 가지며, 동시에 자기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지각한다. 자기를 향한 외부의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일 때는 피할 수 있다.¹¹⁾

자아개념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역동적, 순환적 힘을 가진다. 모든 인간은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에게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은 그의 자아관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매일 가지는 경험은 그가 유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쓸모 없는 사람인가를 그에게 말해준다. 무대의 종양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사방으로부터 정보와 태도를 받게 된다. 이런 정보는 외부로부터 오게 되며, 이 정보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아개념 역시 개인의 경험 속의 활력적인 요소이다. 경험이 자아개념을 형성하기도 하나, 자아개념이 경험의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 역동적 역할을 가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자아개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점이며, 특히 어린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다.

10) Ibid., 20.

11) Ibid., 21.

자아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아개념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결정한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아개념은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자아개념은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결정하고, 자아개념은 기대 체제를 제공한다.¹²⁾

다. 자아개념과 불안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불안간의 관계는 연령과 지역이 다른 여러 집단에서 확고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라는 사실에 그 기초를 들지도 모른다고 주장되어 왔다. 어떤 개인이 불안을 시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특성이고, 낮은 자아개념은 부정적인 특성의 시인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한 검사에서 불안을 시인하는 개인은 다른 검사에서도 불안을 쉽게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 즉 높은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속성을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허구척도 점수와 자아개념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추리는 설명력이 약해 보인다.¹³⁾

일반적으로 높은 불안과 낮은 자아개념 간에는 불안의 측정치가 특수한 것일 때도 확고한 관계가 있다. 즉 시험불안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특수한 상황적 불안도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명백히, 불안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개인이 상황, 특히 성취나 평가를 포함한 상황에서 반응할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대와 밀접히 관련된다.¹⁴⁾

자아에 관한 James의 이론에서 본능은 습관에 의해서 규제되기보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는 자아를 “한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아에 관한 개념형성에서 인식과 기억은 중요하다. 경험적 자아 혹은 “나를”은 내가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총합이며, 자아에는 세 측면-즉,

12) Donald W. Felker,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 23-24.

13) Ibid., 35.

14) Ibid., 35-36.

자아의 구성요소, 의식과 정서 그리고 행동-이라고 논한다. 더 나아가 James는 기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접근을 시도했다. 하나는 자아개념을 실행적 기능을 지닌 인식아(a knower)로의 입장, 다른 하나는 자아를 알게 되는 대상인 객체의 입장이다. 그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아로서의 자아는 철학적 영역으로 추방되어야 하고, 대상으로서의 자아는 개인의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서 지각한다. James의 기여는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를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순수자아의 네 차원으로 구별하여 자아에 대한 개념을 형이상학적 개념에서 경험적 차원으로 끌어내린 다음, 경험적 차원에서 하나의 자아는 개인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 있다.¹⁵⁾

2. 자아개념의 형성과정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은 발달초기에 가정의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공포, 수용, 걱정감의 부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 등이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인간의 여러 심리학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발달초기 가정의 교육적 환경과 부모의 태도는 자아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ogers는 개인의 자아개념이나 가치는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심리학적으로 잘 적응되었을 때 자아의 기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¹⁶⁾ 자아개념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 특유의 내용이 형성되고 발달과정에서 갖는 욕구에 의해서 적절히 수정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chman은 타인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지각과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들의 기대에 대하여 자기의 평가를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아개념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자아란 생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경험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어릴 때의 자아개념은 그 후의 발달과정에서 다시 경험되는 성공과 실패, 자기에 대한 타인의 지각,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 등 현상학적인 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15)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 학지사, 1998), 22.

16) C. Rogers,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1), 127-135.

17) J. G. Bachman, "Youth in transition, vol.2,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intelligence on tenth-grade boys" (Ann Arbor, MI: Serrvr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0), 127-145.

Hurlock은 청년 후기의 자아개념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적하면서 성인들에 의해서 대우받는 조숙아와 만숙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그들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성인으로서 대우받는 조숙아는 훌륭한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적응이 잘 되지만, 어린이로 취급받는 만숙아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⁸⁾ 또는 분열적인 경험이 자기 존중도를 낮추어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한다. 예컨대 Kaplan은 다수의 성인집단에서 그들의 과거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사별, 가족의 심한 우환, 또는 예기치 못했던 경험을 겪음으로 해서 자아개념이 보다 부정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아동이 자신의 성별이 같은 쪽의 가족과 동일시함으로써 성에 알맞은 성격과 사회적, 정서적, 행동과 태도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성별에 따른 적당한 반응과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성의 유형을 이루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그 성의 유형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¹⁹⁾

Hurlock은 가족관계에서의 성격형성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자아개념은 발달초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되며, 형성된 자아개념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계속 수정되고 변화한다.

둘째, 분열적 생의 경험과 가정적 결손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며 특히 정서적 동요는 자아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셋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개념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며 성년기를 통하여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넷째,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18) E. B. Hurlock, Child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1956), 145-156.

19) B. H. Kaplan,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1975), 140-147.

20) Ibid., 157-220.

3. 자아개념과 인간행동과의 관계

인간의 행동과 자아에 대한 연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Sullivan²¹⁾과 Horney²²⁾에 의하면 개개인은 자기 주위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아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 때 생긴 자아구조가 한 개인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며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

Murray는 인간의 행동은 “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인성 체제의 핵심은 필요이며 환경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외부로부터 지각된 압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³⁾ Raimy는 자아에 대한 지각은 행동에 궁극적인 심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고 자아개념은 인간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지각적 대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정 욕구 때문에 변화하고 재구성된다고 한다. 그는 자아개념과 인간 행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²⁴⁾

Combs와 Snygg는 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그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모든 행동은 예외없이 행동하는 유기체의 지각의 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Sherif와 Cantril은 자아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범죄 행위에 의해 그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하여 항상성과 안정성의 결여가 부적응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자아의 항상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즉, 분명한 자아 지각에 따라 적응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이 결정지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응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이 자신의 자아개념에 기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자아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라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경우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경우에 있어 그들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정상적인 적응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

21) H. S. Sullivan,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153-162.

22) K. Horney, Our Inner Conflicts (New York: J. A. Norton, 1945), 126-145.

23) H. A. Murray, Others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8), 253-273.

24) V. C. Raimy, “Self-Reference in Counseling Interview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48), 284-297.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적응의 결여에서 발생되면, 이는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통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왜곡된 자아개념이 게재되어 있다.²⁵⁾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항상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어릴 때는 부모 형제들과, 학교에 들어가서는 교사 및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사회적 인간관계라 한다.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아개념, 가치관, 행동의 기준, 인생관 등이 설정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배우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특성을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

자아란 현실 지향적이어서 이드의 불합리하고 쾌락 추구적인 욕구를 억제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족시키도록 조절하며, 동시에 초자아의 현실에서 너무 벗어난 이상주의적, 완벽주의적 압력에 대항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꾸어 놓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아의 기능이 강해야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성격의 조화를 이루어 적응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은 지나치게 억압적이어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정상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에서 부적응 집단 학생은 정상 집단에 비해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응 속에 장애가 나타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의 개인 내적 원인이 제거 되면 자아가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학구적 자아개념의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구적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에서보다 낮은 집단에서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비행소년의 자아의식구조에서 자아긍정에 있어 항상성이 낮으며, 자아가치감도 낮고 자아수용을 잘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⁶⁾

25) 정원식, 인간과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30.

26) Ibid., 24.

제 2 절 자아개념에 관한 기독교적인 이해

1. 성경적 자아개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과 성령의 활동을 전제로 한 인간의 인격적 경험이며 특별한 결단 행위라고 정의된다.²⁷⁾ 성경에서는 자아개념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아개념의 의미는 성경 안에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으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중요성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자아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념이며, 확신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믿음의 체계는 그들의 자아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결국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 생각 및 태도의 독특한 체계로써 이러한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념화되고 신념화되는 자기 평가적 심리를 의미한다.²⁸⁾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세기 1:26-27) 그러나 사탄의 유혹(창세기 3:5)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으로부터 소외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죄의식은 자아 용납을 부정하게 되고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곧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게 하신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자아는 오직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회심은 자기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인간으로 돌아서는 것이며 하나님께로의 전향이다. 그러므로 회

27) 김균진, 조직 신학Ⅲ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147-148.

28) 강희천, 종교 심리와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276.

29) Ibid, 277-283.

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중, 자기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의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결국 자아개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아의 변형과 성숙을 통해 형성되며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³⁰⁾

2. 신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Jung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적 신앙심은 자아 내부의 중심을 점령하여 그 신앙적 힘이 그의 생활, 사고를 지배하며, 신앙행위가 그의 생을 깊고 풍부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동에 기여하므로 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³¹⁾ 교회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개념 증진과 확립에 크게 기여하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³²⁾

F. Erikson은 인간이 본래 삶의 길에서 이탈된 죄의 생활 방식을 가졌을 때에 복음은 인간이 참된 자아로 살기 위한 용기와 힘과 사랑을 주는 원천이다. 따라서 복음과 신앙은 인간의 자아 형성을 가능케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³³⁾

Hoekema는 기독교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진술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구속을 은혜로 생각하는 데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는 원천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옛 생활 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이루어질 때 기독교인의 자아의식은 긍정적으로 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독교는 절망, 분노보다는 소망, 신앙, 사랑의 방법을 추구하는 종교로 소망은 하나의 건설적인 기대의 이상으로 건설적인 감정의 힘이 되고, 절대자 앞에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한다. 신앙과 사랑은 공포와 절망과 불안 등의 파괴적인 감정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지적했다.³⁴⁾

30) Ibid., 284.

31) 심상영, 융의 분석심리학 (서울 : 쿤란출판사, 2001), 42-47.

32) Sall, Millard,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김양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2), 123-124.

33) F.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3), 217-222.

Clark은 인격 형성에 관해서 종교는 성격을 결합하고 변화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유아기 때의 주일학교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주일학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³⁵⁾

신앙심은 새로운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고, 안전감과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뜻 사이에 생겨나는 변민과 갈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주요한 해결점을 제시한다.³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적 체험을 통한 신앙심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 능동성, 적극성 등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적극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인격과 태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신앙심의 함양 및 발달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기독교 신앙과 자아개념 확립

Erikson이 청소년의 발달 과업으로 자아 형성과 확립을 들고 있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자아개념 확립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본다. 이 자아 형성 확립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이미지인 자화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자기의 인간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과, 미래를 행하여 지니고 있는 성취동기와 성장하면서 경험한 보람과 실망, 그리고 부모, 교사, 선배, 동료로부터 받은 칭찬, 책망 등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자기개념이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은 스스로 나는 무엇을 하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묻고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든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꼭 할 일이 많으며 나는 상당한 존재이다'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묻고 어떤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실현의 갈림길에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였다.³⁷⁾

이런 자아개념 확립의 청소년 시기는 생애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시기로서 가장 열렬하게 믿을 대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시기이며, 사춘기 변화 이후

34) A. A. Hoekema, The Christian Looks at Himself (Grand Rapids: W. B. Erdmans Publishing Co., 1972), 214-216.

35) W. H. Clark, The Psychology of Religions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52), 117-121.

36) 강희천, 종교 심리와 기독교 교육, 46-47.

37) 김종환,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9, 10월호), 69-70.

청소년의 생리, 심리적 현상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과 윤리생활을 보다 열정적으로 실천하려는 경향을 갖게 한다.³⁸⁾

이 시기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원에 대한 동경, 신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기게 된다. 종교적 신앙심은 자아 내부의 중심을 점령하여 그 신앙적 힘이 그의 생활, 사고를 지배하며, 종교행위가 그의 생을 깊고 풍부하게 하며 건전성과 행동에 기여하게 한다.³⁹⁾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건전한 자아개념 증진과 확립에 크게 기여하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장병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건전한 자아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서 N. Wright는

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하는 일,

나.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

다.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개방하는 연습을 하는 일,

라. 자신의 사고의 생활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등에 적극적일 것을 제시한다.⁴⁰⁾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확립하지 못하여 열등감으로 방황하고 군복무를 적응하기에 어려워하는 장병들에게 사랑으로 문을 열고 영적, 정신적, 신체적 휴식과 다양한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더라도 성경적인 입장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를 입게 된다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신앙을 갖고 확신에 찬 삶을 살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이웃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개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38) 윤주병, 종교 심리학 (서울 : 서광사, 1986), 26.

39) 강주태, 청년 심리 (서울 : 형설출판사, 1976), 31.

40) Wright, Norman, 건전한 자아상 (Improving your self-image), 김진숙 역 (서울 : 나침반사, 1983), 33-39.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요 1:12)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새롭게 되어 자랑스런 삶을 산다는 자기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니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개념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회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소유자들이 교회의 신앙 지도와 교육으로 복음 안에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절 군대 문화의 특성

1.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문화란 한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합이다. 이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 관계와 상호간의 인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징 체계, 사회적 규범, 법률, 도덕, 관습, 기술, 물질적 도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광의의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보편적인 일반 문화를 들 수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한 사회에 속한 어떤 특정집단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문화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분에 의하면 군대 문화는 한국 사회가 지닌 일반 문화의 하위 문화로서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하여 군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해 생성, 발전되어 나온 모든 형태의 상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에 대한 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는 군사 문화와 군대 문화로 나뉘어진다. 군대문화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반면에 군사문화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⁴¹⁾

“군대문화는 군대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하여 군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 의해서 생성 발전되어 나온 모든 형태의 상징체계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회 내의 다른 하위 문화와 마찬가지로 군 조직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문화”이다. 물론 이 안에는 군별, 계급별, 병과별 다른 하위 문화가 포함이 되며 비교 대상이 없이 자체로서의 문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군사 문화는 민-군 관계에서 주로 등장하여 민간 단체의 보편적인 문화와는 이질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의 개념이다. 한국에 있어서 군사 문화의 출발을 근원적으로 규명한다면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은 1960년대 초반 이후 30여 년 간 지속되어온 군사 정부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⁴²⁾ 한국군 초기에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군이 근본적인 기능 수행과 더불어 파생적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편 문화와 큰 부조화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군이 점차 보수, 반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되면서 군사 문화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 문화 전체가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별적인 문화 채택이 있어야 하며, 특수 집단으로서의 군대 문화는 존중받아야 한다. 군대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첫째는 집단 의사에 대한 개인의사의 귀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둘째는 군은 어느 집단보다 국가의식을 강조하는 집단이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셋째로는 군은 항상 안전에 대한 위협의 대규모성, 긴박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군대라는 것이 일반 사회 유기체와는 다른 별도의 조직 사회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어느 사회 조직보다 엄격한 통제의 관료적이며 계급에 의한 조직 사회이다. 군대 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력이 행사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인위 집단이다. 따라서 철저한 권위주의적 계급 구조에 의한 명령 체계를 가지는 조직 사회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같은 계급 안에서 유기적 일체감을 공유하게 되는 특징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생겨난 조직이므로 다른 사회적 집단과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41)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 나남, 1996), 118-119.

42) Ibid., 223.

43) 이동희, 한국 군사 제도로론 (서울 : 일조각, 1982), 144.

2. 청년 문화와 군대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군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을 청년들이 받게 되는 기본 군사 훈련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⁴⁴⁾

첫째는 민간인으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무시된다. 그들은 단지 한 명의 병사나 부대의 한 구성원으로만 취급이 되며 각 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무시된다. 둘째는 기본 군사 훈련 시 일반 사회로부터 철저한 독립이 요구되며, 다른 동료 전우와의 사생활이 완전히 무시된다. 셋째는 훈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에서만 실시된다. 넷째는 기본 군사 훈련은 남성다움과 공격 정신에 대한 강조에 치중된다. 다섯째는 기본 군사 훈련은 신병들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 억압되도록 계획되고 실시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과 편견들을 버리게 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 내어야 할 더 큰 사회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큰 사회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군에 입대하기 전의 청년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하여 왔다. 학력, 가족 구성원과 경제적 환경, 종교적 신념과 배경들이 모두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모인 청년들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특별히 1990년대 이후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탈권위주의, 평등주의, 소비 지향적인 배금주의, 쾌락과 향락 지향의 의식 구조 및 대중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로 입대하기 때문에 그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군 사회에서 젊은 사병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먼저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는데, 이를 문화적 충격이라 한다. 이제까지 살아온 사회에서의 가치관과 군의 가치관이 다른 데서 오는 정신적인 갈등을 말한다. 그리고 허무감, 즉 그동안 지내온 생활 습성들을 포기하고 군 생활의 여러 국면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인해 체념적이고 피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과 초조감 역시 해당된다. 엄격한 규율과 훈련 등으로 항상 긴장해야 하기에 불안과 피해 의식을 갖게 되기 쉽다.

군에 입대한 신병들은 군의 일반 사회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쉽게 적응

44) 백종천 외, 한국의 군대와 사회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38-40.

45) 이재윤, 군사 심리학 (서울 : 집문당, 1997), 147.

하지 못한다. 철저한 계급 조직과 명령 복종, 권한, 책임 등의 엄격성과 군을 위반 시의 처벌도 일반 사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이다. 민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자유스럽고 구속을 당하는 압박감을 느끼므로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군 사회에서는 탈영, 근무 이탈, 성적 비행, 구타, 및 총기 강력 사고, 자살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군 조직의 특수성 안에서 사병들은 내적 외적으로 많은 고통과 갈등을 갖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사고는 이러한 어려움의 극단적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고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가치와 윤리성을 등한히 하기가 쉬우며, 신자 군인들은 훈련과 근무 등으로 종교 생활이 극히 제한되므로 신앙마저 잃을 위험이 있다.

제 4 절 기독교 교육 대상으로서의 청년 이해

1. 교육과정 속의 청년 이해

청년이라는 용어는 원래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왔다. 이 용어는 1904년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 때부터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다.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대한 구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고전적인 구분으로는 청소년기를 일반적으로 초경 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과 정체감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이야기한다.⁴⁶⁾

심리학에서는 14-15세부터 22-23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

생물학적 접근에서는 청소년기를 육체적으로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칭하는데, 그 기준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증세인 신체적, 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12-13세, 남자의 경우는 14-15세에 시작을 하고 여자는 18-19세, 남자는 20-22세에 성장을 멈춘다고 이해를

4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서원, 1997), 9.

한다.⁴⁷⁾

사회학의 개념은 쉘스키(H. Schelsky)의 정리를 따른다.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단계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역할을 떠나게 되었으나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14-2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정범모는 청소년이란 용어 대신에 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12-14세에 시작이 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의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정의를 한다.⁴⁸⁾ 이 용어는 1904년 스탠리 홀(G. Stanley Hall)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 때부터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는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strum und drang)라고 특징 지웠으며 그 동안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아직도 자신들을 지배하려는 세력들과는 갈등과 저항을 하고, 아직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방황을 하게 되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춘기에 고조된 본능으로 인해 인격이 취약해지고, 내적인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 생기는 심리적인 방어로 인해 행동의 부적응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정서적인 관계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탈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⁹⁾ 사회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과도기적 현상의 원인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면서 청년 역할의 특성과 역할갈등, 사회의 기대에서 오는 압력,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 이 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를 지배하는 압박과 긴장은 내적인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압력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이것이 각기 개인과 대립이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한다.⁵⁰⁾

청년기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생리적인 특징은 각 기관에 따라 발달의 속도와 양상이 다양하다. 흉선이나 임파선은 출생 후 급격히 성장하여 11세 경에는 성인의 두 배로 발달하나 20세 경에는 그 절반인 정상 수준이 된다. 또한 뇌

47)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 병리 (서울 : 양서원, 1996), 19-22.

48) Ibid., 19.

49) John C. Coleman, Leo Hendry, 청소년은 누구인가 (The nature of adolescence), 남승희 편역 (서울 : 서원, 1993), 20.

50) Ibid., 25.

의 발달은 약 6세 경이면 성인 호홉기, 혈관 등과 같은 일반형은 출생 직후(0-2세)와 사춘기 이후(12-16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18-20세 경에 성장이 완료된다. 또한 성기와 성선들 생식 기관도 출생 후 2세까지 약간 발달하고 거의 발달하지 않다가 사춘기 이후에 급속히 발달한다. 남자의 몽정과 여자의 월경은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⁵¹⁾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신체 외부와 성적인 성숙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이유는 이 때에 뇌하수체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사춘기 시작이 빨라져서 신체·생리적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예전에 비해 오늘날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영양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질 집단 간의 혼인이 신체 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이다. 이 주장(hybrid vigor hypothesis)은 동물실험에 근거하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산업화로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주거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질 집단간의 혼인이 증가해서 2세의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심리·사회적인 이유이다. 예컨대, 성해방의 물결과 함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빨리 시작되고, TV, 비디오, 잡지 등을 통하여 선정적인 자극이나 정보가 이른 나이부터 입수되어 뇌하수체나 성선의 분비를 극하기 때문이다.⁵²⁾

그리고 신체·성적인 발달의 속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성장속도가 2년 더 빠르다. 또한 개인에 따라 조숙한(early maturation) 사람과 만숙한(late maturation)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과 타인들이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며, 또 이러한 시각 차이가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 특징으로는 청년기의 이러한 심리적 특징을 신체·생리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다. 홀(Hall)은 개체 발생을 되풀이하는 반복설을 주장하면서 청년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심리적 변화는 신체·생리적인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신분석학파인 프로이드와 그의 딸 안나 프로이드는 청년기의 이러한 심리적 특징이 성적 욕망의 증

51) 이수원, 심리학 (서울 : 정민사, 1987), 97-101.

52) Ibid.

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강한 본능(Id)과 약한 자아(Ego)사이의 갈등 속에서 불안이 커지면서 감정이 변화무쌍해진다는 것이다.⁵³⁾

그러나 청년기의 신체·생리적인 변화가 심리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상호작용한다. 물론 급격한 체형과 외모의 변화,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한 성적인 욕망의 증가로 인해 불안정하고 질풍노도와 같은 심리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생리적인 변화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가치 규범이나 관습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진다. 인간의 발달이 안정기보다는 전환기에 더욱 촉진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특히 청년기는 네 가지 발달 차원들이 심한 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는 시기로 인생 주기 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의 전환기이다.

그리고 청년기는 신체 생리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부딪쳐오는 요구가 많으며, 또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이 강요되는 시기이다. 젊은 청년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 의문과 회의를 가져 보기도 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격은? 나의 외모는? 나의 재능은? 나의 가치관은?” “남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쳐질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해 낼 수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방황과 자기 탐색을 한다. 이러한 방황과 고민 속에서 청년들은 때론 무력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시기에 청년들이 경험하는 정체감의 위기는 직업, 결혼, 종교, 우정,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황과 탐색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서 새로운 미래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올포트(A. Allport)는 청년기를 “자기에 대한 탐색기”라고 했으며, 에릭슨(E. Erikson)은 청년기를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라고 했다.⁵⁴⁾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평생의 과업이다. 그러나 청년기에 있어서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도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내, 외적으

53) 김애순, 윤진 공저,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9), 19.

54) 이옥경, “자아정체감의 발달: 청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성신여대 학생생활연구 6호, 8.

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이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 시기를 별개의 고립된 시기로 이해를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이전의 아동기의 독특한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생성된 시기이고 동시에 다음에 오게 될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중간 단계의 시기로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2.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가능성과 과제

이상의 군대 사회가 지닌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대 사회는 일반 사회의 가치 체계와는 다른 사회이므로 개인의 존엄성이 억압을 당하고 고독, 소외 등이 경험되는 곳이다. 기독교 군인 교육의 주된 관심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 형성에 있다면, 군대라는 특수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화의 요소들과 군인들이 직면하는 제반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인격적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올바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장병교육의 과제와 이에 응답할 수 있는 폭넓은 전략이 요청된다.

인간의 성장발달 이론에 근거한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군대는 하나의 중요한 인간 교육의 장이 된다. 올바른 인간 형성을 위해 인간은 생의 연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교육관에서 보면 학교를 '교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현대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인간의 교육받을 권리를 일생을 통해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생을 통해 계속 제공받아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군대는 청년들을 위한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된다. 군대란 항상 전쟁을 전제로 한 특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죽느냐 죽이느냐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장이기에 그 성격상 일차원적 사고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인들도 일정기간의 군대생활을 마치면 다시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참가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군의 일차적 역할관계의 틀 속에 그대로 묶어 둘 수 없다. 눈앞의 방위뿐 아니라 청년들의 장래와 직결된 생의 과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군대가 형식과 전통, 가문과 학문적 배경의 구별 없이 특수한 집단의 공동 생활을 통해 인생

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의 장임을 인식해야 한다. 군대는 기능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적의 중요성만큼 '인간, 특히 젊은이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으며, 그 안에 내재된 비인간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곳은 젊은이들의 터전이며, 그들의 삶이 이모저모로 부정되고 다시 형성되는 엄숙한 교육의 장임을 긍정하게 된다.

군인들은 인생 주기에서 보면 청년기에 속한 집단이다. 이들의 특성은 신체적으로 오히려 성인에 비해 원기가 더욱 왕성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말이나 행동 속에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이 시기는 인지 능력이 고도로 발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미 획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은 가설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검증하고 과학적, 객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 분석과 종합, 연역과 귀납, 가정과 실증 등에 의해 청년들은 사고할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능력의 획득은 청년들에게 합리성, 논리성, 추상성 등의 농도를 짙게 하며, 사고의 다른 방향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가설이나 이론을 토대로 미래사를 추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지 능력의 활용을 통해서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까지 객관화시켜 사회관계에서 보다 지성화 또는 이념화된 방어기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현실과 이상, 혹은 미래의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 그들 자신의 인생관 및 세계관이 객관화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의 사회적 발달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자신의 가치 보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반항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성실성은 자아 정체성의 적절한 해결로 나타나는데, 성실성은 사회적 습관과 윤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자각하고 이를 지키는 청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 청년 후기는 인간의 다른 사람과 성적 친밀감 및 사회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친밀감'이란 자신의 모습을 두려움 없이 타인과 연합시키는 능력으로, 성적 친밀감은 성공적인 결혼을 성취하는 필수요소이다. 친밀감 획득이 가능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다. 청년기의 발달의 특성 중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도덕성 발달이다. 이 시기에는 도덕 판단 기준을 동료집단에서 구하며, 행위에 대한 상벌에 관계없이 상대적 동기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율적 도덕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소신껏 행동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도덕성 계발을 위한 과제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기술을 갖춘 인간이면서, 동시에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도 건전한 인격과 조화 있는 협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여기에 개체성과 공동체성의 조화 문제가 대두된다. 기성세대와 성장세대간에, 이상적 기대와 현실적 성취간에 심한 격차와 불균형을 낳고 있는 현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행동이 증해를 잃어버리고 인격의 분열 현상을 나타내기 쉽다.

위에서 살핀 대로 청년기는 발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 속에서도 부조화의 요인을 안고 갈등하는 성장과정을 겪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이들이 군대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집단 생활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이중의 갈등을 겪게 된다. 즉, 군대가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청년들의 심적 갈등은 언제나 반발적이기 마련이다. 군에 입영하는 대부분의 청년은 희망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응하면 기피자로 몰려 처벌된다는 위압감에서 자기 의지가 아닌 국가 의지에 이끌려 군에 간다고 생각하는 데서, 또한 군대생활은 자기 생의 과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외도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군대의 엄격한 계급 구조는 한 인간의, 20년 가까운 생의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데서 생길 만한 마음의 상처를 줄 위험성도 다분히 지니고 있다. 군대라는 폐쇄 사회 속에서 인격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자율적 활동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제한된 생활은 청년들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군대의 임무의 본질이 전투에 있고, 그 전투는 곧 자신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막다른 골목일 때에 군 공동체는 가장 진실되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질문되는 곳이 될 수 있고, 또 군대 사회가 집단적 획일성을 앞세워 개인의 의견을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인간 소외 내지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비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종교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군대가 요구하는 장병들의 정신적 결속과 무장 강화가 종교적 신앙을 요청하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순수한 만남이 가능해지고, 이 일을 돕는 기독교 장병교육의 과제가 주어진다.

기독교 장병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인간화 교육'으로 보는 견해에 공감은 하지만

‘신앙교육’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 훌륭한 신자는 훌륭한 군인이 된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충성심, 복종심, 인내심, 투지력,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 승리하는 용감성 등은 곧 기독교인의 품성과 일치된다. 군인이 싸움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패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타협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한 군인들은 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국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든든한 안보의 역군이 된다. 따라서 기독교 장병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한다.

둘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한다.

셋째, 불굴의 인내와 용기를 배양한다.

넷째, 성숙한 인격을 함양한다(민주·애국시민 육성)

다섯째, 구원의 확신, 즉 사생관을 확립한다.

따라서 기독교 장병 신앙교육의 방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대 내 여러 종교 활동, 교육활동, 인격지도교육, 상담, 방문 등 각종 군종활동 프로그램 모두가 교육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게 마련되어 시행되어질 때 효과적인 기독교 장병교육이 가능하다.

제 5 절 기독교 장병교육의 목표

기독교 신앙의 형성은 신앙생활의 요소인 통상예배, 설교, 성경, 기독교 교육, 상담, 세례, 봉사, 교제, 전도, 신앙적 가정생활을 포함한 개인의 경건생활 등 이러한 신앙 요소들이 온전히 결합될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정립된다.

1. 일반 교육의 개념과 목표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교육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해왔다. 예컨대,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영원불멸의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신념을 가졌던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을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로

무지한 인간을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듀이와 같은 실용주의 철학자는 교육을 '끊임없는 경험의 개조 과정'으로 정의한다. 또한 브라멜드(T. Brameld)와 같은 사회철학자는 교육을 '사회의 유지와 개조를 위한 문화 전달의 과정'으로, 만하임(K. mannheim)과 같은 사회학자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매슬로우(A. Maslow)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는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형성의 과정'으로, 스키너(B. F. Skinner)와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 과정'으로, 피터스(R. S. Peters)와 허스트(P. H. Hirst)같은 교육철학자는 '문명된 삶의 형식예로의 입문식' 또는 '합리적 지식의 형식 안으로의 입문'으로, 그리고 파인버그(W. Feinberg)와 같은 교육철학자는 '사회적 기술과 의식의 재생산 과정'으로 교육을 정의한다.⁵⁵⁾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교육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터즈(R. S. Peters)는 교육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모든 용어가 마치 사물의 이름이 그 전형적인 지시대상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트게슈타인(Wittgenstein)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그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은 특정한 활동이나 과정을 꼬집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⁵⁶⁾ 피터즈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⁵⁷⁾

첫째는 "교육"은 가치 있는 일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규범적 측면-내용과 관련)

둘째는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지적 안목을 길러주는 일이며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인지적 측면-안목과 관련)

셋째는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전달 과정은 교육의 과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과정적 측면-방법과 관련)

피터즈에 따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앞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55) 이돈희, 조화태, 교육 철학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92.

56) R. S. Peters, 윤리학과 교육 (Ethics and Education), 이홍우 역 (서울 : 문음사, 1980), 15-16.

57) Ibid., 42.

정의를 살펴보면, 피터즈의 세 기준들 중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정의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로 무지한 인간을 안내하는 과정’이라는 플라톤의 정의는 교육의 내용(이데아라는 가치 있는 것으로의 안내)을 특히 강조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아동 중심” 교육은 교육의 내용보다는 방법에 주의를 집중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또는 의미 있게 제기되는 경우를 이리저리 모색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질문은 교육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제기된다.”라는 이홍우의 설명⁵⁸⁾을 받아들인다면 일견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즉, 교육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교육의 기본을 이루는 세 가지 측면 중 어떤 측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교육학자의 아픔을 담아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피터즈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한편으로는 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교육학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중심 주제들을 세 가지로 요약·정리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규범적 문제),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을 통해 - 예컨대 행동의 변화, 문화의 습득, 경험의 개조, 습관의 형성, 지식의 획득 - 확인할 수 있는가’(인지적 문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자가 중심인가 학습자가 중심인가’(과정적 문제)하는 논란들이 그것이다.

기독교 교육 역시 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상 기독교 교육 역시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펼쳐지는 논의에 있어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특히, 규범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경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세계관과 진리관, 교사관, 학생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반 교육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을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다른 그 자신의 독특한 교육의 목적, 방법, 또는 철학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 교육의 개념과 목표

58) 이홍우, 교육의 개념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14.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에서 응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교육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의 정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교육의 정의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인간형성의 의도적 행위의 과정이요 노력의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 교육의 정의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 교육은 그 자신의 독특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 또는 철학에 있어서 일반 교육의 그것과는 많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의 내용, 즉 그리스도와 그에 관계된 내용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행위를 배우게 하는 교육이다. 해리 먼로(Harry C. Munro)도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써 기독교 교육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접촉하여 그의 생활과 성품 또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생활로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⁶⁰⁾ 또한 벤톤 이비(C. Benton Eavey)는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과 대면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대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기독교 공동체의 노력을 포함한다”고 했다.⁶¹⁾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도 일반 교육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학습하는 주체의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간에 올바른 만남의 관계를 확립시켜 주는 것으로서 생활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초대하여 구원을 얻는 일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근본적으로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형성시키는 일과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업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²⁾ 코넬리우스 잘스마(Cornelius Jaarsma)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미성숙자를 성숙한 인격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작용

59)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고신대학 논문집 제10집, 112.

60) 김득용, 기독교 교육 원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76), 200.

61) H.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Milfort : Mott Media Press, 1961), 105.

62) Cornelius Jaarsma,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교육 철학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k), 정경숙 역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3), 123.

됨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⁶³⁾

일반 교육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발달하여 온 만큼 교육 목적도 인류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불변의 교육 목적은 고대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희랍 교육의 기본 목적은 시민권을 준비하는 교육이었다. 교양 교육을 통한 개인의 개발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숙고되었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교육 목표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얻는 것을 말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교육의 진실된 목표는 선행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서는 그 강조점이 복종과 순종의 성격이 기본적인 특징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는 훌륭한 시민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다. 16세기 중반 이후의 교육 목적은 종교적인 목적이 주류를 이루었었다.⁶⁴⁾ 이와 같이 교육 목적이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 목적은 인류 역사의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나온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적인 절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벤튼 이비(C. Benton Eavey)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과, 둘째는 구원받은 신자의 품성과 생활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하였다.⁶⁵⁾ 여기서 죄의 회개란 물론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결된 삶의 자세를 위해서 갖는 신앙일 수도 있지만 불안의 원인이 되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원받은 신자의 품성과 생활이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안을 신앙으로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반피득은 기독교 교육의 구체적 목적을 다음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는 기독교 사상의 형성이다. 인생의 목적과 기독교의 인생관을 형성하기 위

63) 노운백, "교회에서의 교육," 침신논집, 1981, 50.

64) H. W. Byrne, A Christain Approach to Education, 91-92.

65) C. Benton Eavey, An Introduction to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123.

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터전은 성경에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까지도 기독교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 인격 훈련이다. 회개하고 신앙을 갖는 것만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 즉 믿음, 정직, 책임감, 성실, 관용,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에의 충성과 같은 인격의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성품과 덕이 없으면 그가 증거하는 복음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독교인의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실하고 관용하고 남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심정을 가지게 하며 모든 일에 화평하며 공정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독교 사회생활이다. 기독교 이념과 사상은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간관과 가치관이 각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구체적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독특한 기독교 신앙 지도의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의 목적은 달라지게 된 것이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다.

3. 인간화의 장으로서의 기독교 장병교육

레티 러셀 교수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선교와 그 초대에의 참여 과정이라고 전제한다. 러셀은 다음과 같이 교육을 정의한다.⁶⁷⁾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을 참 인간성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66) Cornelius Jaarsma,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교육 철학, 123.

67) Letty M. Russell, 기독교 교육의 새 전망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20.

사명에 참가하게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케 하는 일이다.” 이 짧은 문장은 러셀이 말하려는 사상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선교와 교육의 함수 관계는 “참 인간성” 회복이라는 대단원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다. “참 인간성”에 대해 러셀은 비록 피상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참 인간성이란 이미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성취해 갈 어떤 보장도 아닌 것이다. 다만 참 인간성이란 인간과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간이 참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자유하는 인간, 열려진 세계와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 그리고 신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는 인간이라고 본다.⁶⁸⁾

둘째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다. 세계와 “삶” 전체를 러셀은 신의 선교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그 위에 그 신학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신학의 빛에서 러셀은 기독교 교육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는 인간화가 그 장이 되어지는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대화와 참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좁은 의미의 교회학교 교육만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명제와 대화적 관계를 매개로 하는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적 명제에서 그 방향과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셀은 일반적인 모든 교육의 행위는 참 인간성 회복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며, 기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선교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화를 장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어떻게 장병들을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 대부분이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연령과 폐쇄된 집단이라는 특성, 그리고 2년 2개월의 짧은 복무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심리학자 하비거스트는 청년기의 과제로 친구를 선택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일, 결혼과 가정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 필요한 기술과 개념을 터득하는 일,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추구하고 이를 성취하는 일, 자기 실현을 가능케 할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 등을 지적해서 설명했다.

68) Ibid., 35.

한국 청년의 경우는 위의 과제와 함께 의무적으로 주어진 군대생활에 대한 올바른 적응을 위한 준비 또는 적응 과정에 따른 중요한 과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군대 기간은 애국 정신과 공덕심, 그리고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국민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과 함께 민족 속에 자기를 일치시키면서도 개인을 전체적인 집단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핵의 결합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군대 임무의 본질이 전투에 있고, 그 전투는 곧 자신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막다른 골목일 때에 군 공동체는 가장 진실되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질문되는 곳이 될 수 있다. 또 군대 사회가 집단적 획일성을 앞세워 개인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 내지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비종교인들이 처음으로 종교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 차원에서 군대가 요구하는 장병들의 정신적 결속과 무장 강화가 종교적 신앙을 요청하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순수한 만남이 가능해지고, 이 일을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과제일 것이다.

고용수는 군대가 지닌 특성과 거기 속한 젊은이들의 삶의 정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 장병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종파적 교리전달이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집행하는데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⁶⁹⁾ 계속해서 고용수는 장병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해 있는 조직 구조 속에서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과,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인류 복지 사회 건설에 평화의 역군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역사 형성의 주체자로서의 존재인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의 빛 안에서 확신케 하는 일이 기독교 장병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한다. 이상의 성격을 종합해서 군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를 요약하면, 넓게는 '인간화 교육'으로 보면서 아래와 같이 군의 청년들의 발달 과제와 군 공동체의 특성에 부응하는 인간화 작업을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⁷⁰⁾

첫째, 가치관 형성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성향은 개인주의적 흐름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시기가 자율적 도덕의 시기이므로 각기 발달특성에 맞는 개별지도가 요청되는 때임에 반해, 군대 사회가 집단적 획일성을 앞세워

69) 고용수, "인간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군인교육," 교육목회 2000년 봄호, 154.

70) Ibid., 154-157.

개인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데서 군인들은 심한 고독감 내지는 소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개인 및 집단상담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나 충고를 넘어서서 특수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적응,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 행동 결단을 내리도록 친절한 해석이 요청된다. 군대 사회의 기준 가치나 타당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객관의 세계를 이해하여 자기와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셋째, 군 조직사회가 소외시킨 개인을 역사 창조의 위대한 부름(이른다면 세계평화의 역군)으로 인식해서 이에 응답하고, 창조적 소수의 대열에 속한 자아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청년기는 뚜렷한 자아확립이 이루어질 때다. 의로운 일을 보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대아(국가, 민족)를 위해 지평을 종교적 신념 형성으로 확대해서 접목시킬 때 군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직한 사생관을 확립하게 된다.

넷째, 군인들로 하여금 군대도 개인의 일평생의 과정 속에 주어진 중요한 배움의 도장임을 인식시켜 그 기간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 자세로 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 참여 활동을 통해 생의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친밀한 대인관계는 사회적응의 한 방법이다. 친구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등에 의해서 개인의 인격적 성숙과 함께 사회성이 계발되므로, 어떻게 하면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청년들의 인격 지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군이라는 특수조직체 내에서는 상사와의 유연비어, 위협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 때문에(특히 신병의 경우) 오는 공포와 불안이 개인의 인격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들에게 종교적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이들의 근원적인 불안, 욕구불만 등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정서안정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지금 200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서서 민족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인식의 현장 교육과 민족 교육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그러함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군 공동체가 민족 교육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으리라 가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건강한 청년이면 누구나 거쳐가는

일정 기간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쓰라린 과거 전쟁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한민족의 수치와 치욕의 사실을 그대로 알려 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군대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과 사회의 보편적 이념을 철저하게 심화시켜서 단합된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민족 교육의 도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 장병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다지기의 한 부분으로서 1절과 2절에서는 자아개념, 자아개념과 신앙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자아개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시도했으며 3절에서는 군대 문화의 특성을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특징과 군대문화와 청년문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교육의 주 대상인 장병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 과정 속의 청년 이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군대가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마지막 5절에서는 일반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연구하고 이어서 기독교 교육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인간화의 장으로서의 기독교 장병 교육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본 장의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음 장에는 기독교 장병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온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살피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질적 연구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발전적 제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3 장

실제적 방법론

제 1 절 기독교 장병교육의 방법

1.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 교육

웨스터호프의 지적에 따르면, 오늘날 종교 교육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현상 중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 전통”이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는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그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종교 교육의 교사, 행정 책임자 및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요 관심을 기독교 “지식”의 소개와 보급이라는 과업에 두고서, 그 “지식”에 관해 설명하려는 학교 수업형의 교수법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란, 일반 학교 교육과는 달리, 기독교적 “지식”의 전수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지식 전수”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학교 교육의 수업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생생하게 맥박치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지고 자각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웨스터호프는 전망했다. 바로 이 같은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그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성례”에의 참여를 제안하면서, 종교개혁 이후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성례의 교육적 기능”이 다시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르게 표현하여, 종교 교육이란 기독교 “지식”의 전수는 물론, 양육의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삶의 형태”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같은 과업에서는 “성례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웨스터호프는 지적했던 것이다.⁷¹⁾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신학적 해석들은 다양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서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특별한 역사이다”, “성례는 인간들로 하여금 거룩한 분에게 나아가게 하는 입구이다”, 그리고 “성례는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같은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⁷²⁾ 또한 “성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인간들을 부르시는 특별한 활동이다”, “성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총체적 차원의 삶의 형태를 지칭한다”,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인간들이 새롭게 지니게 되는 각성과 해석에 대한 축하 행사이다”, 그리고 “성례는 인간들이 축하하고 있는 대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는 표시이다”와 같은 해석들도 발견할 수 있다고 브라우닝과 리드는 기술하였다.⁷³⁾

보스턴 칼리지의 종교 교육학 교수인 토마스 그룸은 성례와 종교 교육간의 상호 호혜적이며 상호 공생적인 관계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근세로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성례와 종교 교육 사이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그 후 오늘에 이르도록 그 같은 상호 연계성이 점차 경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 아래 그룸은 성례와 종교 교육간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른바 “공유적 실천” 모형을 제시했다.⁷⁴⁾

이를 살펴보면, 기독교회는 그 시작 때부터 성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업을 함께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5세기 경부터 교회에서 드렸던 매 주일의 예배는 성례와 종교 교육을 함께 포함한 것으로서, 그 두 가지 구별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례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그 당시의 예배에서는

71) John H. Westerhoff and William Willimon, Liturgy and Learning Throughout the Life Cycle (New York : Seabury Press, 1980), 60.

72)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142.

73) Robert L. Browning and Roy A. Reed, The Sacraments in Religious Education and Liturgy, 36-46.

74)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 The Way of Shared Praxis (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122.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를 함축하는 신앙의 규범으로서 “니케아 신조”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되었고, 또한 성 어거스틴의 교훈이나 기독교의 주요 덕목으로 채택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신학적 해설도 주일 예배를 통해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신앙의 규범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원천이라고 이해했을 뿐 아니라, 성례에의 참여는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전수된 신앙의 규범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이해했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당시의 예배에서는 예전의 종교 교육적 기능이 수행됨과 동시에, 종교 교육을 위한 성례적 형태도 전수되었다고 그룹은 지적했다.⁷⁵⁾

2.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

선교에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미국에서 퍼졌던 반군대적 감정은 군대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하여 사회와 군대를 유지하는 정부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 일반적으로 ‘자유화’라 특징지워지는 변화를 가져왔다.⁷⁶⁾ 대개 군이라는 환경에서는 먼저 집단을 생각하게 되지만 위와 같은 ‘자유화’의 사상은 집단적인 행동만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국군은 개인이 모인 집단이고, 군대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신앙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며 따라서 개인적인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군종목사는 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신우회, 기독교간부회와 같은 조직을 활용해서 영혼 구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 군대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20-30만 명이 순환되는 조직인 점, 연대급 이상 본부와 사령부 군종목사가 배치되어 있어 병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많은 대대급 이하 교회에는 군종목사의 손길이 미치기가 힘들며, 대대급 교회에서도 군종병이나 지휘관의 사역의 중요성이 크나 실제적으로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제자화 훈련이라고 본다.

75) Ibid., 338-339.

76) Richard G. Hutcheson, 교회와 군선교 (The Churches and the chaplaincy), 박상철 역 (서울 : 실로암, 1988), 56-58.

제자란 “배우는 자”요, “전 생애의 모든 영역을 주께 드리는 자”인 것이다.⁷⁷⁾ 제자훈련에 대해 쿠네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자훈련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발전되어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즉 새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결신자들을 양육하도록 가르치는 작업을 말한다.⁷⁸⁾ 제자훈련 혹은 제자화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영적 운동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 운동을 벌이도록 교육하셨고 훈련하셨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3년 여간 사역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리들에게 전파했고, 가르쳤으며, 또한 이적도 행하셨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보내셨다.⁷⁹⁾ 그리하여 그가 훈련시킨 12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또한 기독교가 계속 확장되게 하신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께서 마음에 가지신 것을 자신의 마음에 가짐으로써 시작된다.⁸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M. Green은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언급하였다.⁸¹⁾ 성령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적 충동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주신 사도적 본질을 우리 안에서 수시로 체험하는 내적 충동이지, 소명을 받은 어떤 직분과 관련된 은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설득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영적 재생산을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보여 주신 다음의 몇 가지의 큰 원리를 수용해야만 한다.

77) Francis M. Cosgrove Jr., Design For Discipleship (Grand Rapids : Zondervan, 1971), 13.

78) Gary W. Kuhne,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Grand Rapids : Zondervan, 1982), 22.

79) A. G. Gene,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Chicago : Moody Press, 1974), 28.

80) W.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 네비게이토출판사 역 (서울 : 네비게이토, 1988), 52.

81) Michael Gree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80), 33.

첫째, 말씀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다. 시험받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시면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는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는 본을 보여 주신 것이다.

둘째,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와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

셋째,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종과 같이 섬기는 데 있다고 하셨다. “십자가가 종의 정신의 상징인 것 같이 수건은 봉사의 징표이다.”⁸²⁾ 유월절 잔치에 모인 제자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발을 씻어주는 자가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누구든 제일 작은 자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 때 예수께서 수건과 대야를 취하여 발을 씻겨 주셨다. 그 권위는 지배 서열의 권위가 아니라, 기능의 권위였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진정한 봉사와 작의의 봉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넷째,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최고의 자기 겸손 자체였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낮아지는 모습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는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제자로서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위대한 교육자가 되었고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의 훈련자가 되었다. 제자훈련 원리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³⁾

첫째, 선택의 단계이다. 주님의 관심은 군중을 이끌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고 그 군중이 따를 사람들에게 있었다.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적 목표는 그의 생애를 증거하

82)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ng the disciplines : a journal workbook to accompany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193.

83) P. T.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Master : trainer), 신재구 역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 1988), 7.

고 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당시 제자들은 평범한 사회인의 모든 계층을 총망라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신 자들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는 밤새워 기도하셨다. 이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데는 더디긴 했지만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정직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동거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지냈다. 이것이 그의 훈련 프로그램의 정수였다. 예수의 시간은 이중적으로 보내졌다.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경청하며 예수님과 함께 보내졌던 것이다. 예수님은 사역이 2년과 3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선택된 제자들에게 점차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 “안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의미처럼, 이런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같은 단순한 예수님의 방법은 요한과 안드레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와 보라”는 초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헌신의 단계이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한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의미처럼, 아무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 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를 좋아했을 때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질과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 언급하자 소수만 남고 많은 이들이 물러갔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대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닮아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네 번째로 헌신의 단계가 지나면 나눔의 단계에 들어선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생애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천국의 열쇠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 그의 거룩하심은 그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과업에 대한 헌신이었으며 “저들을 위하여” 모든 생애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다섯 번째는 모범의 단계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인간과 함께 사는 그의 방법을 배우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범을 통하여 개인적인 훈련 생활의 모든 면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으나,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영혼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믿음과 행위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든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간에 그들의 전도 사역과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생각을 성경 속에 반사시켜 표현하였으며 성경을 90여 회의 대화 속에서 사용하여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줌으로 그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계속하려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었다.

그 다음 단계는 위임이다.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하신 최초의 초청에는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몇 개월 뒤 정식으로 사역에 임명된 뒤에도 그들 스스로가 무슨 전도의 일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의 일년 이상이나 음식을 구하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관찰하는 것 밖에는 별로 한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갈릴리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직접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하나님과 생동적인 관계를 갖고, 다음으로 어떻게 그가 일을 하셨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 그들의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을 재확인시키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곳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등 사역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전달해 주셨다. 부활 후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 주셨다. 제자 삼는 사역은 전도로부터 시작된다. 전도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지상명령이며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감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는 습관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고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자 준비하셨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행동과 반응을 점검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제자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셨다. 세계 정복이하의 어떤 것도 그의 목표가 될 수 없었으므로 그 목표를 향하여 항상 그들의 수고를 감독 하셨다. 모든 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획된 목표를 계속 이끄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나 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은 기대하셨으며, 성장해 감에 따라 이것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셨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생산의 과정이다. 재생산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육자가 가르치는 것을 피양육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그가 배운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이런 형태의 재생산이 연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제자배가에 의한 군 복음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뜻을 재생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그의 사역은 제자들의 인생 안에서 여러 배로 복사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의한 것이라면 세계 복음화는 시간과 제자들의 충성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의 생애와 같은 것을 재생산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필요성을 심각하게 알려 주신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이다. 포도나무의 힘은 생명 없는 자기들에게 끝없이 주어지지 않았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본래의 성품대로 생존한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 베임을 당한다. 이 원리는 예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듭 강조되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하여 그의 희생에 대한 필연적인 보상으로 여겨졌다. 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도 방법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물론 원리의 적용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항상 필요하다. 그러나 원리 자체가 복음을 전하려는 욕망 속에서 혼돈되어 버렸다. 지도자 양성과 재생산이라는 값비싼 원리들이 군대 안에서도 집단세례와 같은 손쉬운 대중 모집 전략과 일상적인 종교 활동과 행사의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우리 사역이 궁극적으로 영속되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회심자들이 진실하게 나아가서 보다 많은 신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심자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군종목사들이 몸담고 있는 현장인 군대 상황 자체는 소그룹을 통한 전문적

제자 양육이 바람직하다. 군종목사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통한 제자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제자화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 2 절 예전과 기독교 장병교육

1. 예배의 교육적 의미

군종목사의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군종활동은 예배의 집전이다.⁸⁴⁾ 예배의 참석자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로 인생관 및 사생관을 확립하고 인생의 의미, 삶의 방향과 목표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게 되고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신자들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게 한다. 군종목사에 의해 집행되는 예배는 신자 장병들의 군 생활에 깊이 관여하여 그들이 바람직한 인간이며, 훌륭한 군인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써 가장 흔하게 사용된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proskuneo)라는 단어이다. 이 말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의 뜻은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또는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다. “지상의 통치자에게 신체적으로 굴복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⁸⁵⁾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찬양, 존경 그리고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다.⁸⁶⁾ 신앙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신앙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관습은 그들의 여정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예배, 학습 및 삶은 신앙의 뿌리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배, 학습 및 삶의 이러한 상호관련성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정되어 있다.⁸⁷⁾ 사도행

84) 군에서 종교활동으로 규정한 예배는 주일 낮과 밤 예배, 국가 및 기념절 예배, 부대 창설 기념 예배, 훈련 출동 예배, 결혼 및 장례식 예배, 내무반 예배 등이 있다. 단 수요일예배는 종교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형식으로 드러진다.

85)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85), 8.

86) John MacArthur, 참된 예배 (True Worship), 한화룡 역 (서울 : 두란노서원, 1986), 7.

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 듣고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고학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예배는 기도, 시편 읽기 그리고 사도의 편지를 읽었고 다음에는 구약의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서야 사도의 말씀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의 선언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그 때에 전문직을 맡은 디다스칼로스라는 교사가 있어서, 바로 설교 이후에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치는 디다케, 가르치는 교육 행위가 예배시간에 꼭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있었다.⁸⁸⁾

제임스 스마트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로 사람들을 한 걸음씩 이끌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교육은 예배하는 단체로 들어가게 하는 교육이다. 교회는 무엇을 행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답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교회는 예배하는 중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배는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일으키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겸허한 응답이다. 교회의 활동과 발언은 모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의 표현인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교제가 보이지 않는 원천이 되어 있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백성의 생활에 들어오시고 백성들은 감사와 사랑과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데서 이루어진다.”⁸⁹⁾라고 고백했다.

전통적으로 예배는 교육적인 것으로 의도되어 왔다. 우리는 석유리, 조각품, 그림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중세시대의 성당들을 볼 필요가 있다. 성당에 들어서면 우리는 시각적인 상징으로 표현된 교회의 이야기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러나 중세의 이런 상징 위주의 방법은 교육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본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예배에서 교훈적인 요소를 회복하였다. 루터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찬송가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했다.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

87) Donald E. Miller, Story and Context: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251.

88) 은준관, 교회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234-235.

89) James D.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161-162

지 않으려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로 이해했다. 목사는 교인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만 했다. 종교개혁은 설교와 가르침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건주의와 주일학교 운동은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예배를 교육과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경건주의는 예배 이외의 다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집회를 가졌다. 존 웨슬리는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 평신도들로 소집한 성경공부 모임을 격려하였다.⁹⁰⁾ 주일학교 운동은, 예배를 목사에게 맡기고 교육만을 전담하는 평신도 교사집단을 형성시켰다. 따라서 예배와 교육은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예배와 교육을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주일학교의 명칭은 교회학교로 바뀌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찬송가들을 공부하였다. 교회학교의 공부는 예배를 뒷받침하도록 계획되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예배는 항상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해왔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 사역이 그 힘과 영감을 그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순환하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예배는 교육되는,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신앙의 생생한 표현이다.”⁹¹⁾ 따라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생활에 있어 그토록 의미가 있고 또한 교회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예배가 기독교 교육에 관련하고 있는 자들의 진지한 관심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독교의 예배는 구원계시와 말씀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묘사하는 신앙적 사건이요, 상징적 관계에서 의식을 통한 계시의 실체를 경험케 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적 삶의 총체적 표현이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 크게 발전되었던 신앙교육서는 예배의 교육적 기능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예배에서 이 신앙교육서가 예식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 전체를 통하여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적인 감화와 깨달음을 주고자 한 예배의 교화적 성격은 바로 교육적 기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경건주의 시대의 예배적 이해는 바로 예배 참여자들의 교화에 그 목적을 두기도 하였던 것이다.

90) Donald E. Mille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260.

91) Paul H. Viet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United Church Press, 1965), 13.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이다. 그 때문에 기독교를 실재화해 주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회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배를 위하여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다.⁹²⁾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살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교회는 예배에 의해서 참된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자각하고 자기실현의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예배는 신앙교육의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나 비의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배는 오늘날 교육의 학습 이론에 중히 취급되는 과정으로서 학습의 포괄적이며 그룹적인 성격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즉 예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배우는 포괄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

폰 알멘(Von Allmen)은 예배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사려 깊은 통찰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실상 예배는 교회교육의 기본 배경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을 배운다. 예배야말로 독특한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운다. 말씀은 곧 믿음이다. 기도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배운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접근하게 만들고 또 기도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옹기종기 못한 신학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또한 희망을 배운다.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세상과 인간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용기를 가지고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은 모든 사물과 피조물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게 해준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이미 피조물은 그 궁극적인 운명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사실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 예배에서 형제들과 같이 있고 그들이 향하는 일

92)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 도서출판 솔로몬, 1993), 195.

을 존중하며 그들과 더불어 떡을 떼는 이 모든 것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은 우리를 독존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신비스런 모양으로 우리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면서 그의 몸의 지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⁹³⁾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안에서 복음으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현재적인 위치를 점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견고히 하며 믿음에 굳게 세움을 받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교육적 역할 속에 있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습자의 역할 속에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말씀의 가르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형성시키는 모든 순서들에 관련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배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은 청년, 성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각 사람에 대해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함축된 의미를 개인적 의식 가운데서 인지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이러한 주권적 권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장면에 관련시킨다. 따라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2. 말씀 중심의 예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다. 말씀 중심의 예배에 있어 교육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가. 예배의 선언, 묵도, 기원, 송영

우리의 예배에서의 묵도는 예배의 시작을 뜻하며 단순히 눈을 감고 머리를 가볍게 숙인 자세로 예배의 태도를 표하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93) J. J von Allmen, 예배학 원론 (Worship :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외 3인 공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20.

선언이요,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그에게 드릴 수 있는 준비이다. 여기에 잇달아 연결되는 시편 성구의 낭독과 간략한 예배 인도자의 기원의 기도는 개신교 예배의 특징인 말씀 중심 예배의 총체에 대한 선포인 것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신 은혜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회중을 지금부터 이 예배 안에서 현저히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머물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데로까지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역시 회중에게서 아멘으로 응답되는 것이다. 특히 주일의 예배의 방향 제시와 함께 예배의 의미와 성격과 예배의 선언에서부터 예배의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참여자는 그 목표로 향한 동기 유발과 함께 배움의 과정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나. 교독문

이 순서는 원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 순서로, 초대교회에서 행한 바울 서신의 낭독에 근거하였으며 그 후 벌써 3세기경에 복음서들이 읽혀졌고 이러한 발전은 후에 서구 기독교 예배의 서신과 복음서 낭독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유대교의 회당예배의 유산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쾰빙글리와 칼빈에 의하여 복음서와 서신서 낭독 순서가 거절당하였으며 칼빈은 성경봉독 대신에 사회자와 회중이 십계명을 교독하게 하였다.

영국교회의 공동 기도서에서는 다시 십계명 교독과 성경봉독 양자를 다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도리어 시편을 중심으로 한 성시교독으로 바뀌어 예배 중에 교독문을 낭독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개신교 예배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면 한국교회의 예배에 성시교독보다는 설교 본문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성시낭독 순서가 부활되었으면 한다. 현대 서구의 교회에는 여전히 성경낭독의 순서가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순서의 중요성은 역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으로서 예배의 참여자들에게 신앙교육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다. 설교

설교는 기독교 예배의 심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장부와 같은 중요

성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육적 임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다. 설교 없이는 역시 예배일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설교의 기능은 복음 전파와 신앙의 가르침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만 예배의 참여자 편에서는 설교의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신앙의 가르침이요, 신앙교육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부르시며 그러한 삶의 인생의 목적임을 밝혀준다. 설교는 인간의 신앙적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의 역할로 실제 생활의 중심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물음과 대답의 교수적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설교의 교육적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설교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효과적인 말씀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설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것은 효율적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명료하게 신자들에게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그들의 사람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도록 하는 교육목회의 의도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라스웰(Lasswell)은 그의 논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를 송신자(Source), 메시지(Message), 통로(Channel), 수신자(Receiver), 및 효과(Effect)라는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다.⁹⁴⁾

라이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일곱 단계로 집약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교육적인 설교를 위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

(1) 전달은 전달자가 자기 메시지를 전할 때 (또는 자기 설교를 행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첫 단계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라디오 아나운서가 자기의 보도를 전할 때 아무도 그 방송국에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주 우리는 방송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왔다. 우리는 이것이 우직한 가정임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주일 예배에 있어서까지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접촉은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드디어 발생된다. 우리가 귀를

94) Harold 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1948), 7.

기울이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음은 역시 사실이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좀더 중요한 다른 일에 마음을 쏟고 있을 수도 있으며, 깊이 빠져들어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나 접촉 없이 커뮤니케이션은 성립되지 않는다.

(3) 피드백은 듣는 사람이 처음 전달자에게 정보를 반영해 보이는 것에 따라 되 돌아오는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접촉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과정이 거의 언제나 요구된다.

(4) 이해는 전달자가 전하는 메시지로써 의미하는 바를 듣는 사람 편에서 정말 잘 이해할 때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이해도 하지 못하는 설교를 듣는다. 그들은 메시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행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떠나간다. 그들은 목사의 말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5) 받아들임: 어떤 사람들은 전달자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완전히 거부해 버릴 수도 있다. 일단 그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해버리는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거부해 버렸을 때에도 전달자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거부의 근거를 알기만 한다면 대답을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거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6) 내면화: 비록 귀를 기울이고 들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7) 행위: 요즈음의 연구가들은 전달자와 듣는 사람이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커뮤니케이션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⁹⁵⁾

95) Clyde Reid, 설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A study in Preaching as Communication), 정장복 역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5), 64-67.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설교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지속적인 교육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잡음”으로 인해 송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생겨나기도 한다. 비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송신자의 언어, 대화, 논리, 상징 등이 왜곡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란 “불확실성이나 불명료성을 줄이려는 특정한 행위”인 것이며,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피드백(feedback)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이해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요청된다.

둘째, 선별된 지식이나 정보만을 주입시키는 설교를 지양하고, 그 대신 성경을 현재의 삶에 의미 있게 연결시켜 해석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특정의 인식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이해”와 “해석”의 활동이다. 즉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전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특이한 “이해의 틀”을 준거로 모든 정보나 현상을 인식하고 있기에, 두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성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⁹⁶⁾ 그 대신 커뮤니케이션이란 각자의 이해 지평 위에서 타인과 타인에 의해 전달된 정보나 현상들을 단지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신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특정의 지식이나 사상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전수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위에 새로운 해석이 첨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군대 속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삶이 실천이 가능한 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수신자가 메시지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사용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의 매체 형태와 그 기능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를 했던 맥루한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곧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⁹⁷⁾ 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는 단순히

96) Jürgen Haberma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 Beacon Press, 1976), chap. 1.

97) Marshall McLuhan and Quentin Fiore,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 Routledge, 1982), chap. 3.

수단적 차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차이는 각기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며 느끼게 하는 인지적, 정서적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설교의 매체로 사용되는 음성언어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암기적 내용이나 고백적 내용으로 축소시켜 이해하게 하며,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 부적절하며, 수동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게 하는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문자언어를 주요 매체로 삼는 교육 형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내용에 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며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학습태도를 유발하지만 생동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형태를 사변적인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현상을 동반해 온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

20세기로 들어선 이후 슬라이드, 영화, 비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언어를 매체로 한 교육이 교회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뉴미디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매체보다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정된 정보나 특정의 견해만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잠재적 가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해석이나 비판 능력을 저하시키며 창의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교육적 역기능을 자아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 같은 매체 외에도 비음성적 상징언어를 통해 교회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내용을 잠재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수시켜 왔다. 이것은 특히 예배 의식이나 성례와 같은 예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상이나 조각, 그림과 같은 구조물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목회자는 청중들의 효과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음성언어를 매체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문자언어를 매체로 사용하느냐의 차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생각이나 정보를 상이하게 인식하거나 느끼도록 하는 본질적 차이를 이끌어 낸다. 그러므로 뉴미디어 언어를 사용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면 설교의 효과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 신앙고백

예배 중의 사도신경에 의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예배에서는 대체로 신앙고백이 성서 교독문 다음에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예배 순서의 전통적 관계에서 볼 때 전혀 어떤 원칙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독일의 루터교회 예배 순서를 카톨릭의 전통에 연결시키면서 내용 순서에 있어서 정규적인 것,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구별하여 개신교 예배 순서의 원칙을 삼았다. 사도신경은 정규적인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순서로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서구교회의 예배에서는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란 완전히 새로운 순서로서의 개혁을 뜻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말씀 중심의 예배순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성찬식을 행할 때 신앙고백과 찬양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우리의 예배 순서에서의 사도신경은 그런 뜻의 의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예배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확인의 의미인 것이다. 신앙고백이야말로 예배를 통한 배움의 과정 안에서 반응과 신앙적 회복단계의 한 요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반응과 재 회복적 단계의 요소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개인적인 신앙의 반응을 나타내며, 신앙의 근거점을 확인하며,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용납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신경은 일찍이 기독교 신앙 진리의 가르침에 내용으로 포함되어 교리적 가르침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의 예배에서의 순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학습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이다.

마. 봉헌

봉헌 순서는 원래 고대 카톨릭 교회의 성만찬 예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성찬에의 참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헌신적 사랑의 제물과 연합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제물과 참여자 자신의 헌신과의 관계에서 성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⁹⁸⁾ 이 때문에 회중은 성찬에 올 때 먼저 빵과 포

98) 정일웅, 교육목회학 246.

도주를, 그리고 기름과 초, 그의 자연의 생산품 등을 가져와 제단에 내어놓게 되었다. 그런 행위가 9세기경부터 부분적으로 봉헌의 순서가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신자들이 가져온 예물의 드림의 행위가 예배 중에 드리는 순서로 등장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의 떡과 잔이 거룩한 물질로의 변화를 위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 순서로 바뀌게 되었다.⁹⁹⁾ 전자는 11세기경에 와서는 돈을 대신하여 예배 중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졌으며 종교개혁 이후의 말씀 중심 예배에서 감사의 제물 또는 사랑의 제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개신교 예배 중의 한 요소가 된 것이다. 개신교의 예배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행위를 위한 희생 제물적 의미에서 드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의 표로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은 개신교 예배의 봉헌순서의 한 의의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의 관계에서 봉헌의 행위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그의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음에 대한 깊은 교훈의 의미를 나타내 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삶, 그것이라 할 것이다. 설교가 참여자의 신앙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요, 새로운 신앙적 결심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음성으로서의 응답이었다면 봉헌 순서는 올바른 순종과 헌신의 표로서 드림의 찬양이 되는 것이다.

바. 찬양

예배에서 부르는 회중 찬송과 그 노래에 함께 동반하는 악기의 사용, 성가대 등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미적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음악은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정직한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배 중의 찬양과 찬송은 역시 신앙교육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 요소로 평가된다.

교육과정은 고전적 이론에서 보면 정서적 차원이 증히 여겨진다. 특히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의 실체는 빈번한 찬송의 부름을 통하여 예배에서나 성경공부에 있어서도

99) Ibid., 115.

지적 중심이기 보다는 훨씬 감정적이며 정서적 차원에서 더 강하게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찬송가 가사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 고백의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상황에서 신앙을 가르치며 전달하는 하나의 교육적 기능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사. 축도

주일 낮 예배는 목회자의 축도와 함께 끝난다. 축도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귀결된다. 첫째는 세상으로 파송의 의미와 다른 한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신다는 확약의 선언이다. 루터와 칼빈은 개신교의 예배를 특징지워, 카톨릭 교회의 미사예배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삼위일체적 관계에서 축도를 행할 때, 오히려 아론의 축복의 선언(민수기 6:24-26)을 축도 시에 말쑼으로 사용했다. 축도는 예배와 신자의 세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예전적인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서 학습과정에서 학습을 마무리하고 삶의 실재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축도의 끝맺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와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논란이 있다. 군인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군종목사들이 다양한 교단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축도의 끝맺음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라 함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선언하지 않는 기도의 끝맺음이기에 유의해야 한다.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¹⁰⁰⁾고 여겨진다.

3. 성례 중심의 예배

성례 중심의 예배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주제를 기독교 장병들을 위한 교육목회로 한정하기 때문에 유아세례와 입교 의식은 제외하도록 하며 성인세례와 성만찬 의식의 교육적 차원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00) 황원찬, 개혁주의 예배학 총론 (서울 : 도서출판 잠언, 1996), 121.

가. 성인세례와 신앙교육

교회는 그 말 자체에서 이해되듯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임’으로 생각된다. 교회의 교육적 과제는 ‘세례’에 기초하고 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¹⁰¹⁾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개종자들에게는 증생의 신앙을 표현하는 결례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행해졌었다. 그 후에 회개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도덕적 정결의 필요가 첨부되어져서 세례라는 관문을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2세기 말부터는 세례를 받는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례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례자 준비 교육은 교회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은 물론 기존 성도들에 대한 성인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교회의 신앙교육은 한 마디로 세례교인의 교육에 있었으며, 세례교인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바로 신앙교육서가 그 중심을 이루었음을 보게 된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증생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결례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대체로 6개월 간의 학습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6개월 간의 세례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행하는 1년의 구조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런 교육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최초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해졌던 근본적인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훈련소에서의 합동 세례식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군인교회의 집단세례의 정당성은 우선 성경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3,000명의 회심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대로 신앙이 고백된 사람들에게 세례가 행해졌고 그들 모두 초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또한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을 듣고 간절히 소망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곧바로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101) 웨스트민스터 소 신앙교육서 제 94문.

간수의 모든 식구들과 루디아 집안 사람들이 간수와 루디아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바울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이처럼 성경은 세례 준비를 위해 교육 계획이 반드시 뒤따랐다고 하는 증거를 어느 곳에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로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임과 자발적인 소망이 세례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군 신자화 운동 과정에서의 집단세례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쳐져야 할 것이며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집단세례의 정당성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모든 회심자의 2/3는 집단 개종을 통하여 얻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 비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모든 사람들의 90퍼센트는 집단개종으로 생겼기에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집단개종 회심자들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²⁾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 세례식의 여러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세례식은 수세자의 신앙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례 후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난 장병들이 자신이 근무하게 될 부대에 있는 교회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훈련소의 집단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장병들이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나. 성만찬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관하여 바울의 교훈을 따라(고전 11:24-26)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즉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전하는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¹⁰³⁾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에 “기념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온다. 그런데 이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라는 뜻이다. 이 점에

102) D. McGavran, 교회 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 보문출판사, 1982), 434.

103) 정일웅, 교육목회학 220.

있어서 성찬의 교육적인 특성을 보게 되는데 바로 기억의 훈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종말론적 수평 관계에서의 배움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성찬이 유대교의 유월절 잔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갖는 것으로 본다면 유월절의 만찬은 여호와와의 과거와 미래적인 구원의 현재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며 성찬 안에서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상에 있었던 예수의 만찬을 대리적 의미로 기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장차 그의 오심에 대한 예견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영으로서의 주님의 현재적 임재요, 장차 오실 그의 나라와 영원한 성찬과의 관계에서의 성도의 수직과 수평의 교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만찬은 교회의 이론과 실제의 통일을 위한 본보기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일 년에 두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이것은 한인 목사가 없던 시절에 선교사들이 지방 교회를 일년에 두어 차례씩 순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다.¹⁰⁴⁾ 또한 현대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성찬 중심의 예배보다는 말씀 중심의 예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경시여기는 경향 속에 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만찬이 함께 하는(행 2:24) 예배를 드린 본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일년에 두 차례로 기념하는 성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에 가까이 위치하는 성찬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들음에서만 믿음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만 극을 이루고 있으나, 믿음은 들음의 관계이지만 그 들음을 더욱 확고하게 실체화시켜 주는 것은 성만찬의 독특한 기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실체는 성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만찬은 교육적으로 볼 때 모든 기독교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신앙적 공동체 훈련의 모체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4. 발전적 제언

이상으로 예전을 통한 기독교 장병교육의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

104) 김영재, 교회와 예배 (서울 :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69.

자는 예전을 통한 기독교 장병 신앙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교회에서 실시되는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독교 장병들에게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배를 시도해야 한다. 일반적인 군인교회는 묵도, 찬송, 교독문, 사도신경,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찬양대 찬양, 설교, 찬송, 헌금, 광고, 찬송, 축도 순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전통적인 예배양식을 고수해 오고 있다. 그리고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 저녁예배는 대체적으로 찬양예배 형식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찬양과 더불어 설교자는 주제별 성경공부 형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예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주일 낮 예배

주일 낮 예배의 특징은 우선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예배양식이기보다는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최대한의 시청각 자료(빔 프로젝트, 각종 음향시설)를 활용해서 장병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는 영내 사병들을 최대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며 군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본 교회의 경우는 군인 가족과 사병들이 함께 드릴 만한 예배 공간이 절대부족하고 아울러 예배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부 예배는 군인 장병 중심의 예배로 2부 예배는 군인 가족 중심의 예배로 분리해서 드리고 있다. 셋째로는 성례식(세례식과 성찬식)을 주기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 교회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례식을 거행함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신앙고백과 신앙교육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1) 주일 낮 예배의 예

입례송 / 주께와 옆드려 / 다같이

주께와 옆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의 부름 / 사회자

찬송 / 다같이

참회의 기도 / 사회자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성시교독 / 정해진 본문

찬송 / 다같이

기도 / 순서자

성경봉독 / 민수기 14:1-14

찬양 / 찬양대

설교 / 믿음의 위력/ 설교자

찬송 / 다같이

봉헌 / 독창, 독주

봉헌기도 / 담임목사

성도의 교제

찬송 / 다같이

축도 / 담임목사

교회소식 / 사회자

파송의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 주일 저녁예배

주일 저녁예배의 몇 가지 특징은 우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다. 전통적인 순서를 탈피한 생동감과 감동이 있는 찬양예배로 드린다. 둘째는 메시지 또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성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지나친 찬양 및 특별순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장병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셋째는 특별한 순서를 기획해서 예배의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

를 가져오게 한다. 예를 들어 짧은 드라마나 간증을 미리 준비하여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돕는다. 조명, 음향, 빔 프로젝트 등 사전의 세밀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는 장병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교회에서는 직할대 별로 매주 돌아가면서 주관예배를 실시하고 있다. 주관예배를 맡은 부대는 군종사병이 중심이 되어서 특송, 사회, 봉사 등 예배 전반에 걸쳐서 참여하게 함으로 예배의 중요성의 인식과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하고자 한다. 다섯째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헌신예배를 드리는 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신앙교육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

(1) 주일 저녁예배의 예

찬양과 경배 / 준비된 찬양단과 다같이 / 20분 정도
 기도 / 순서자
 기도송 / 찬양팀
 성경 / 준비된 본문
 특송 / 찬양대, 예배 주관부대 신우들
 설교 / 담임목사 / 주제별 성경공부 형식의 설교 내용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같이
 축도 / 담임목사
 교회 소식 / 담임목사

3. 수요예배

주일 저녁예배의 양식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되 담임목사의 설교를 교회력을 고려한 본문 위주의 강해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는 군인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군종목사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쉬운 언어로 말씀을 선포하여 청중이 쉽게 복음을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예화와 유머를 사용해 말씀을 재미있게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병들은 심신이 지쳐 있다. 다음은 '군대라는 상황'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선포되는 말씀이 장병들이 몸담고 있는 군대라는 상황에 알맞게 적용될

때 청중은 관심을 갖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제 3 절 주일학교와 기독교 장병교육

1. 주일학교의 중요성

주일학교는 주로 어린이 및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회 또는 교구에 설치해 놓은 학교로 다양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일학교 운동은 기독교 교육사에 있어서 획기적이고도 이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고답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 운동 자체는 후대에 학문으로서의 교육을 태동시켜 놓은 가장 중요했던 교육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일학교 운동 자체는 어떤 학문적 시도에 의한 운동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운동은 후대에 와서 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주일학교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영국의 교도소에서였다. 1600년대에서 1800년대에 서유럽은 서서히 등장한 공업혁명으로 인하여 오랜 전통과 기존사회 체제는 자체 안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은 영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었다.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활의 유동성이 빈번해지고 단순했던 생활 구조가 복잡하고 기능적인 생활로 변화되고 있었다.¹⁰⁵⁾ 사회 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 계급의 이원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대중교육의 필요성은 부각되기 시작했다. 교육 기회의 균등화는 점차 사회의 공업화와 함께 필연처럼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인 자선학교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출발하였다.

주일학교는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¹⁰⁶⁾라는 한 평신도에 의

105) Donald J. Butler,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2), 54-55.

106)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는 영국 글라우세스터 시에서 1735년 9월 14일에 출생하였다. 레이크스는 공식교육을 초보적인 것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세 때 아버지의 별세와 함께 인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졌다. 레이크스는 교도소를 개선하고자 모금을 해서 죄수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교도소의 개혁은 “예방”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알고 1780년 주일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1783년 레이크스는 자가 인쇄소를 통해 글라우세스터 시의 주일학교를 소개하였다. 1785년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수는 영국에서만도 25만 명으로 계산되었다. 그는 1811년 별세하였다.

해서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졌다. 신학이나 교회 신앙에 관한 깊은 지식도 없던 레이크스는 도리어 평범한 언론인으로서 교도소 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경험은 레이크스에게 절망을 가져왔으며, 그 절망은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혁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교도소에 형을 받고 온 자들의 변화를 모색하기 전에 먼저 사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무지”와 “나태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보았다.¹⁰⁷⁾ 이 신념의 구체적 표현이 주일학교였다.

1780년 글라우세스터 시의 킹 여사를 처음 교사로 하고 킹 여사 집에서 최초의 주일학교는 시작되었다. 레이크스와 스톡크(Thomas Stock) 목사가 보증인이 되었으며 교과과정은 글 읽기, 철자법, 성경 연구, 문답서 공부 등이었으며 예배시간에는 함께 교회로 갔다. 1783년 처음으로 글라우세스터 시 신문에 “주일학교”가 소개된 이후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격히 영국, 웨일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처럼 초기 주일학교는 단순히 신앙을 주입하기 위한 종교교육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도덕 교육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가치관의 교육에도 중점을 두었다.¹⁰⁸⁾ 그 후 교회교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강조점도 교파마다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벤슨 박사는 “신중한 평가에 의하면 모든 교파들의 전회원의 75%는 주일학교를 거쳐 양육된 사람들이며 교회일꾼의 85%와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의 95%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었다.¹⁰⁹⁾ 이것은 그만큼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 통계라고 볼 수 있다.

교회 평신도들이 성경을 체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관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107) Donald J. Bulter, Religious Education, 60.

108)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 민영사, 1997), 407.

109) C. H. Benson, The Sunday School in Action (Chicago : The Bible Institute Colpotage Association, 1932), 37.

부족하다. 특별히 군인교회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신우회 성경공부를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장병들이 군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통해 장병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 교재는 거의 없다. 군인교회가 기독교 장병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 개념의 시스템의 도입과 인격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편찬이 급선무라 하겠다.

2.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과정

기독교 교육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교육과정의 “선정과 조직 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을 지적하는 논의이다.¹¹⁰⁾ 이에 의하면, 성경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소개·전수하며, 그들로 하여금 성경적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응용하게 하려는 목적 아래 마련했던 전통적 교육과정이 “비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미흡하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독교 교육과정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 수립, 교육 내용의 선정, 교수-학습 방법의 채택 및 교육 평가의 형태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유형의 논의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 사상이다.

두 번째 유형의 비판적 논의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논의이다.¹¹¹⁾ 곧 기존의 기독교 교육과정은, 그 내용 구성과 조직 형태가 학습자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교사 중심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바로 이 같은 구성적 특징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기존의 기독교 교육과정은 구약→신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학습 내용의 순서를 결정하고, 신학적 서술 체제와 일치하는 용어으로써 학습내용을 서술하려 하며, “교사”들에 의해 편리

110) D. Campbell Wyckoff,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1), 157-168.

111) Locke E. Bowman Jr., Analysis and Assessment : The General Protestant Sunday School (Birmingham :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6), 89-112.

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위주로 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의 관심, 성향, 인지 능력, 또는 정서 상태와 같은 발달적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반영하지 못한 결과, “효율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의 비판적 논의는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념적 “왜곡성”을 지적하는 논의이다.¹¹²⁾ 특히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이념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 유형의 논의에 따르면, 전통적 교육 내용 중에는 성경과 기독교적 삶의 형태에 관한 적절한 해석 이외에도, 과거의 시대적 편견이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은연중 정당화시키는 비기독교적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이 같은 내용들이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비기독교적인 신앙관이나 윤리관을 전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내용의 선정은 이러한 이념적 “왜곡성”을 거부하고 배제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유형의 논의를 통해 강조되는 핵심사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판적 논의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교육은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에게나 시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¹¹³⁾ 1960년대 후반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제안된 평생 교육의 개념 및 ‘순환 교육’ 혹은 ‘지속 교육’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과거 학습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왔던 성인을 교육과 학습의 참여자로 규명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전 생애를 통한 인간 경험과의 연계 속에서 실시되어야 할 성인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다.¹¹⁴⁾ 이와 같은 추세는 사회 교육이나 직업 교육의 분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곧 1970년대 후반부터 엘리야스(John L. Elias), 맥켄지(Leon McKenzie), 폴츠(Nancy T. Foltz) 및 보겔(Linda J. Vogel) 같은 학자들은 성인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과정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는 청·장년을 위한 교

112) Michael W. Apple, Ideology and Curriculum (Berkeley : McCutchan Publishing Co., 1975), 95-119.

113)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411-412.

114) Paul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1970) ; C. Rodriguez,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1972) ; J. Lowe, The Education of Adults : A World Perspective (Paris : UNESCO, 1975).

육이 시행되는 데는 거의 없다. 특별히 군인교회의 주일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 육군 군종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85개의 교회의 주일학교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군 간부 신자 가정의 출석률이 저조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들도 부서별 비율을 보면 유치부 85.2%, 아동부 100%, 중등부 39.5%, 고등부 6.3%로 나타났다.¹¹⁵⁾ 이는 유년,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학교의 현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병 훈련소에서 세례를 줄 때에는 아무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장병들은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라도 세례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교회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그런 교육을 하기에 주일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기독교 장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독교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과정이 연구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설정을 위해 무엇보다 앞서 요청되는 것은 명확한 “교육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교육과정의 목적·목표가 일단 설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제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과 새로운 학문적 연구 결과, 그리고 사회 문화적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는 맥락에서 끊임없이 수정, 개선되어야 하는 일련의 교육 계획인 것이라고 볼 때, 교육과정의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목적과 목표의 합리성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미 3장에서 기독교 장병의 교육의 목표는 설명하였다.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 속에 비인간화의 요소를 제거해 주는 인간화 작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장병교육의 목표라고 하겠다. 이런 목표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종교활동, 인격 지도 교육, 상담, 방문 등 각종 군종활동 프로그램 모두가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 있게 마련되어 행해져야 하겠지만, 특별히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

115) 김상균, “군인교회의 주일학교,” 교육목회, 2000년 봄호, 192.

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3. 발전적 제언

교육목회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장병들에 대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태임을 앞서서와 같이 논의를 해 보았다. 본 교회를 모델로 하여 기독교 장병 교육과 주일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우회 모임을 주일학교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목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토요일 오후 나 주일 오후에 신우회원들이 모여서 친목회 형식의 모임을 가져온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런 형식으로 신우회 모임을 유지할 경우 신앙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속적인 목회적인 돌봄과 신앙교육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이 든다. 본 교회의 경우는 주일 낮 1부 예배를 기독교 장병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군인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교육관에서 장병들에게 주일학교 식의 시간을 가진다. 부대별로 반을 편성하고 헌신된 간부, 가족들을 교사로 임명하여서 성경공부, 교제의 시간, 새 신자 환영의 시간 등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는 준비된 교사 양성이 성공적인 주일학교 운영에 관건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지금까지 행하여 온 교사 중심의 성경공부는 학생 중심으로 또는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의 방식으로, 나아가 소그룹 학습의 패턴이나 귀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사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학생들과 성경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질과 훈련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성경 본문을 성경 신학적인 이해를 근거로 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교사의 자질로는, 교사가 학생들과 다루어야 할 교과와 자료들을 알아야 하며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¹¹⁶⁾

116) Herber 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 Educational Theory and Application (Milford : Mott Media, 1981), 125.

목회자는 이들 교사들의 자질 개발을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과 훈련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개별적인 교회 안에서 교사 단기 대학의 운영이나 교사 훈련 세미나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교사를 훈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독교 장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셋째는 군인교회 특성에 맞는 일관적이고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기독교 장병들을 양육시키는 교재의 통일이 필요하다. 현재 군종목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자 양육 교재는 다양하다. 열 단계 성서 교재를 사용해 제자를 양육하던 군종목사가 다른 부대로 이동하면 신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 운영되던 소그룹은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 교재이기 때문이다. 담임 목회자가 바뀔수록 소그룹 양육 교재도 모두 바뀐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멤버로 제자양육을 받던 신자도 군의 명령에 따라 다른 부대로 이동한다. 그가 새로 전입된 부대 교회의 소그룹 제자 양육 교재가 전 교회 교재와 동일하지 않다. 결국 그가 갈등에 빠져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군 목회 현장은 이동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에 한국군종목사단에서 '좋은 군사'라는 군인 신자 양육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¹¹⁷⁾

이 교재는 첫째,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 내려온 교회의 교육적 전통을 이어 받고자 애쓴 노력이다. 사실 그동안 군인교회 안에는 장병들을 위한 체계적인 성경공부 교재가 부재했고, 이러한 성경공부 교재의 부재는 군 50년 동안 군인교회로 하여금 자체 성경공부 교재 발간을 극도로 사모케 했다. 이러하던 차 군 선교 현장에 서 있는 군종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것이다. 물론, 미비한 점이 있고 교회 생활의 전 부분을 다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점이 있지만,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교회 일치의 선봉적 선상에 서 있는 군인교회의 자립, 자강을 돕는 자생적 업적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교회사와 군종 병과적 차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이 교재는 '비전 2020운동'을 통해 대대적인 세례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117) 한국 군종목사단, 좋은 군사 (서울 : 쿤란출판사, 2001).

미래의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많은 세례 신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양육 교재라는 점에서 그 현장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성경 공부 교제가 기독교적 전 이해를 가진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어 군이라는 특수성 안에 있는 초신자 양육에는 그 적용상 무리가 있다는 난점을 극복하는 패거리이기도 하다. 이점은 교재의 구성적 특성에서 쉽게 발견된다. 곧 이 교재는 교리 편과 교회 생활 편을 축으로 하여 사회 여타 성경공부 교재가 취급되지 않는 병영 생활 편을 다루는 창의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창의성을 함유한 ‘좋은 군사’가 다루고 있는 제 주제의 범주는 기독 교회로 갓 들어온 장병들에게 복음의 핵심적 내용과 그 실천적 사항을 쉽게 습득케 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좋은 군사’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기독 장병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게 하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셋째, 이 교재는 누구든지 그 교재를 읽으면 이해가 되고 개인적 경건생활(Q.T)과 예배가 가능토록 하는 안내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방 철책, 해안초소, 레이더 기지, 그리고 전 후방 각 부대 내무반 등등 각지에 있는 기독 장병들에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진 여러 형태의 성경공부를 가능토록 할 것이다. 곧 이 교재는 기독 간부와 군종병에 의한 제자화 양육 스타일의 성경공부도 가능하고 혼자서 교재를 읽는 독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동아리 활동의 일환인 그룹 바이블 스터디 또한 가능토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 세계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당신의 허리를 낮추신 성육신적 원리에 입각하여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했으며, 신앙적 성숙을 모색하였다.

결국 이 교재는 ‘비전 2020운동’을 통해 결신하여 세례 받은 기독 장병들이 성경을 배우며 교회에 정착하되 기독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전할 것이며, 기존 군인교회 간부 성도들의 성경공부 교재로도 능히 사용될 수 있는 효용 가치를 지닌 한국 군종 목사단과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협력하여 창출해 낸 기념비적 사업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교재는 초신자 양육에 중점을 두고 편집이 되었기에 기존의 훈련된 기독 장병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계속해서 군종 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는 교재 편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기독 장병들을 위해서는 일반 선교단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

나이다.

넷째는 군인교회 특성에 맞는 교육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군대의 이동성(명령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점), 시간의 제약성(사병들의 경우에는 26개월이면 전역하기 때문), 군이 요구하는 신앙의 역할과 교회교육의 목표의 조화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교과과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장병들의 부대 전입 및 교회 첫 출석 : 신병 환영 행사/신우회 모임으로 연결
- 전입 신병 신앙교육 : 새 신자반(3주) 및 기초반(4)으로 양육
- 양육을 위한 신앙교육 : 일대일 제자 양육 교재를 활용(12주)
- 사역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 제자훈련(세션회), 일대일 전도법, 군종집체교육
- 특별 신앙교육 : 일일 신앙부흥회, 찬양집회, 내무반 방문예배,

(1) 전입 신병 신앙교육

전입 신병은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사병들이다. 이 시기는 군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적용 기간 : 전입 후 3개월까지

교육 방법 : 전략적으로 기존의 신자와 신병교육대 및 자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를 구분 교육을 해야 한다. 기존의 신자 경우에는 교회교육에 대한 소개와 기존 주일학교(신우회)와의 연결을 통해 소그룹 및 성경그룹으로 연결을 시킨다. 하지만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맞는 새 신자반(4주)과 기초반(3주) 수료를 목표로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 내용 : 이 시기에는 1주에 한번 모이게 하고 첫날은 담임 군종목사가, 나머지 교육은 훈련된 새 신자반 리더에 의해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재는 자체 제작

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신자반 경우에는 3주 과정으로 진리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초보적인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초반에는 4주 과정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는 소속부대 고참 병사 및 군종병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양육을 위한 신앙교육

전입 신병 교육을 마친 병사들과 입대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병사들에게 군 생활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임과 동시에 사역자 신앙교육반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성경공부 반이라 할 수 있겠다.

교육 기간 : 기초반 이후 12주

교육 내용 : 기존 성경공부 교재 가운데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성경공부 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는 도서출판 두란노에서 제작된 책으로 전체 12주 과정으로 집필이 되어져 있다.

교재의 구성은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네 번째 만남/ 기도, 다섯 번째 만남/ 교제, 여섯 번째 만남/ 전도, 일곱 번째 만남은 성령 충만한 삶, 여덟 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생활, 아홉 번째 만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열 번째 만남/ 사역, 열한 번째 만남은 일대일 양육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한 주는 첫 시간 소개 교육 시간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이 교재의 장점은 12주로 되어 있어서 군인교회의 이동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적절한 기간이며 교육과정을 분석했을 때 장병들에게 적합한 주제로 편집되어 있다. 또한 이 교재는 이 과정을 필한 자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을 때 양육반 장병들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사역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양육반 과정을 이수한 자들 가운데 소명과 은사가 있는 자들을 선별하거나 신학

생들과 입대 전 선교단체에서 사역자 과정을 훈련받은 자들을 선발해서 사역자 반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존의 성경공부반과 동아리 조직 및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중대나 소대에 편성되어 있는 군종병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 내용 : 일대일 제자훈련 사역반 교재를 활용해서 양육하되 주기적인 특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교육이라 함은 군 선교 지원단체 가운데 세션회라는 제자훈련 전문교육기관에 사역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다. 대체로 사역반 형제들을 군종병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군종집체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세션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CCC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교육, 일대일 전도법 등을 교육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4) 특별 신앙교육 프로그램

일일 신앙 부흥회: 신우회원만을 위한 일일 신앙 부흥회를 기획하여 실시하는데 부대 운용 시간을 감안하여 분기 1회씩 실시하되 젊은이들에게 맞는 외부 강사나, 장병들에게 영적으로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종목사를 초청하여 토요일 일과 후부터 주일 낮까지 연결해서 시행함.

찬양집회: 여론 조사하여 인기 있는 복음성가 가수 및 찬양단을 초청하여 수시로 실시하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젊은이들 특성상 신앙성장 및 신우회 부흥에 아주 도움이 된다.

내무반 방문 예배: 순회 방문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병사들에게 예배에 참여케 하여 신앙성장의 기회와 불신 사병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다. 월 1회 정도 여전도회원들의 위문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신우회 헌신 예배: 강사를 초빙하여 신우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 신우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이밖에도 기독 장병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군인교회는 모든 역량을 기독 장병들의 신앙교육과 장병 전도에 쏟아 부어야 한다.

제 4 절 인격지도와 기독교 장병교육

1. 일반적 고찰

군종목사는 일반 부대에서 참모로서의 기능 가운데 인격지도 교육을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인격지도 시간을 전략적으로 장병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인격지도 교육은 한마디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옳으며 가치 있는가를 가르치고 바른 행동과 인간 관계를 지도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장병들로 하여금 건전한 정신적, 도덕적 태도를 배양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 장병들의 올바른 성격을 형성시키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 '사람다운 사람', 즉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인격지도의 문제는 기독교 군인교육의 중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경우 조직공동체의 삶 속에서 인간 관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갈등과 그 결과로서 빚어지는 전투력의 상실은 물질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집단의 구성원인 군인 개개인의 정신상태가 평온과 만족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것은 무서운 파괴적 결과를 자아낸다. 따라서 자주 국방의 주체가 되는 군인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건전한 인격지도는 국가가 바라고 민족이 요청하는 교육의 중요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인격지도 교육은 군에서는 크게 군종교육의 틀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교육이다. 군종교육은 크게 종교의식 행사를 포함한 종교 교육, 인격지도 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이 되며, 이중 인격지도 교육은 장병 개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은 개개인의 인격적이며 도덕적 책임감을 각성시키고 함양하는데 이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관의 인적 감화가 선별 조건이므로 종교 양식과 더불어 군종목사의 독특한 업무 분야이다. 이런 교육은 현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비군 군종담당관에 의해서 예비군에게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병들에게 애국 정신을 고취시킨다.¹¹⁸⁾

현재 군종목사에 의해 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격지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와 중점을 가지고 실시되어지고 있다.¹¹⁹⁾

118)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이스사, 1985), 270.

119) 육군 본부, 군종 업무 시행 지침/ 운영 계획(2002), 30.

목 표 : 장병 가치관 함양 및 육군 가치관 구현

중 점

- 윤리, 도덕 의식 고취
-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의 육군 가치관 구현
- 신앙인격 함양
- 사명감 고취 및 사생관 확립

다음의 목표와 중점 아래 ‘바른 인간화’를 위해 피교육자의 양심에 교과 내용이 부딪치고, 그것이 다시 그 인격에서 행동으로 표시되도록 이끌고 있다. 군내에서 군종 목사의 인격지도 교육은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들에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교육 시간과 토론 시간에 장병들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교육 방침은 작전 및 교육 부서와 협조 후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며 정기 교육으로 야전부대는 분기 1회(년 4시간), 학교 기관은 교육 기간 중 1회 실시이며, 교육 내용은 성숙한 인격과 상경하애(上敬下愛), 자율책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제로 실시할 것을 밝히고 있다.¹²⁰⁾

군에서 요구하는 인격지도 교육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병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군인과 국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장병의 인격을 개발, 육성하여 군이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게 함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지도 교육은 군인정신의 6대 요소인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책임감, 임전무퇴의 기상이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인격지도 교육의 내용은 삶의 참된 가치를 인식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 즉, 사생관을 정립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건전한 정신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서 부대원들의 단결심, 사명감 및 업무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이것은 군기 위반 사고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서 군기 위반을 교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120) Ibid., 30.

부대 통솔에 도움을 준다.

2. 발전적 제언

이상에서 일반적인 면에서 인격지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인격지도 교육은 장병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군종목사가 그들을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인격지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며,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교회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세상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현대 문화를 통합하여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가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¹²¹⁾

인격지도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문화는 인간 활동의 전적인 과정과 그 활동의 전적인 결과를 가리킨다.¹²²⁾ 하나님의 선한 창조계는 인간들의 문화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을 처음 창조시의 선한 모습으로 새롭게 구속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문화 현상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¹²³⁾ 그러므로 인격지도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성경적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합당한 교육을 위해 먼저, 인격지도 교육은 개별적인 인격지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마다 형성되어져 온 가치관들은 각각 다르다. 받아들인 교육 방법과 과정도 다르며 문화적 배경, 경제적 환경, 인간 관계들이 저마다 독특한 특

121) Arthur F. Holmes, 기독교 세계관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서울 : 엠마오, 1987), 24.

122)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32.

123) J. H. Bavinck, 기독교 선교와 세계 문화 (The Impact of christianity non-christian world), 권순태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7), 51.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성에 맞는 개별적 인격지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장병들을 위한 인격교육 강의 자체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적인 인격지도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격지도의 방향 설정에 있어 우선 내용 면에서 지엽적이고 부대정황과 사건에 따라 설정되는 주제 범위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잡혀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 가치관, 나아가 인격의 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부속품의 구조와 조직을 잘 압으로 고장을 배제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격지도를 위한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리고 현재의 인격지도 교육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인격지도로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격지도 교육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교육행사를 단순히 '실시했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장병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소한 장병들의 심성에 주제 내용이 부딪치고, 그것이 현재적 동기유발로 인해 다시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교육이야말로 올바른 '인간화'가 이룩되는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자는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와 같은 간절한 심정이 수반되어야 하겠고, 단순한 강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자료 준비와 방법이 연구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인격지도라는 기회를 통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장으로 간접적인 복음을 증거할 기회임을 인식하고 성경적인 확신과 열정과 기독교 장병 양성을 위한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군종목사의 인격지도 교육은 장병들의 인격을 개발하여 '사람다운 사람' 즉 '올바른 인격인'으로 양육하는 일이다. 올바른 인격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양육될 수 있다. 군종목사는 인격지도 교육 중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인격지도 교육이야말로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여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제 5 절 상담에 의한 기독교 장병교육

1. 교육적 상담의 필요성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상담학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학문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는 학교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¹²⁴⁾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기독교 목회 상담학은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장호는 상담을 정의하기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등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하였다.¹²⁵⁾

그러나 기독교적인 상담의 정의는 일반 상담의 정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이란 기독교의 전제로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우주, 인간, 인식론, 병리학 등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적 인식의 전환을 기저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학이며 이것이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심리학이 구별되는 그 독특성인 것이다.¹²⁶⁾ 제이 아담스(Jay Edward Adams)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기독교 상담의 토대는 성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의 본질상 가치관, 사고, 관계, 자세, 행위 등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므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성경보다 그러한 변화를 초래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정리를 하면, 기독교 상담이란 “문제”를 지닌 자, 곧 내담자(피상담자, Client, Counselee)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담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내용들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변화는 당연히 발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상담의 목표와도 밀접한 내용인데 상담의 목표도 역시 내담자의 행동, 태도 또는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124)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4), 19.

125) Ibid., 11.

126) Gary R. Collins, 상담심리학 입문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서울 : 기독교지혜사, 1988), 40.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이것을 부연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환경에 성경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¹²⁷⁾ 따라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주된 상담의 목표는 영적이며 심리적인 성숙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서 성숙이란 두 가지를 포함한다.¹²⁸⁾ 그 하나는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인격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그 변화란 태도와 욕망,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지각 그리고 내면적인 성품인 인격이 포함된다.¹²⁹⁾

개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목회상담의 목적을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 (1) 내담자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을 권고하는 것.
- (2) 내담자의 영적성장을 돕는 것.
- (3) 내담자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도록 돕는 것.
- (4) 내담자에게 그리스도의 표준과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
- (5) 내담자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¹³⁰⁾

이러한 측면에서 군종목사가 교육목회의 한 영역으로서 상담을 이해하고, 이것을 목회현장에서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상담을 하려면 문제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목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¹³¹⁾

교육은 지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상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문제는 이 상담의 중요성을 목회자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회교육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127) Lawrence J. Crabb, 성경적 상담학 (Effective Counseling), 정정숙 역 (서울 : 총신대학교 출판부, 1989), 23.

128) Ibid., 23.

129) Ibid., 28.

130) Gary R. Collins, 카운셀링 가이드, 48-49.

131)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서울 :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84-85.

들이 개인의 삶의 문제들, 내적 갈등, 또 불안정한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상담의 기능이며, 이런 기능은 효율적인 교육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룹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하시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고통받는 자들의 요구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고 썼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던 자들에 관해서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애로운 관심은 오늘날 부딪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성경에는 선택된 자들만이 사람들을 도울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¹³²⁾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말쑥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다루는 기술과 함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경적 지식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이론과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곧 지성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상담의 사역이 긴요하며, 특히 군이라는 목회적 현장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면에서 효과적인 상담을 실행할 때 교육적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2. 군 현장에서의 교육적 상담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듯이 공동 생활을 하는 군인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들은 정든 고향과 가정을 떠나 엄격한 규율과 조직이 지배하는 군 사회 생활

132) Gary R. Collins, 카운셀링 가이드, 19.

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현대화되고 개방된 사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므로, 군대와 같은 폐쇄적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 신상 문제, 가정 문제, 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¹³³⁾

이들 병사들에게 군종목사가 친근한 상담자가 되어 병사 자신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나, 조언을 통해 해결해 줌으로써 안정된 마음으로 저마다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요 상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의 현재 또는 미래의 신상에 관한 문제.
- (2) 동료 및 고참 그리고 상관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제.
- (3) 이성관계 또는 성적 욕구와 그 해소에 관한 문제.
- (4)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 및 성격과 행동장애에 관한 문제.
- (5)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이다.¹³⁴⁾

상담 활동은 장병의 이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고민을 파악하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복무 의욕을 증진시키며, 사고를 예방하고 임무 완수에 기여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의 대상은 전 부대원이 된다. 부대원은 누구나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담은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문제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병 상담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구분된다. 개인 상담은 내담자 또는 피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이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상담자가 직접 해결하여 주는 방법이다. 집단 상담은 기록 상담이라고도 하며 주로 설문서 형식으로 작성된 기록 상담의 원리를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상담한다. 이렇게 청취된 상담 내용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취약점 또는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런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은 수시로 실시하며 아울러 군인 가족 상담을 통해 간부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에 도

133) 우기식, 문화와 청년 선교 (서울 :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2001), 103.

134)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293.

음을 취야 한다.

상담 및 조치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상담자 인적사항(소속, 계급, 성명, 주특기 등) 파악 및 기록
- (2) 상담 내용 기록
- (3) 상담 처리 내용 결정(상담동기 및 진위, 내담자, 상담자)
- (4) 상급자에게 보고 및 건의(필요시)
- (5) 지휘관 및 참모부에 보고 및 통보(필요시)
- (6) 처리 후 내담자와 접촉유지, 관심
- (7) 상담 후 처리 결과 기록 및 유지

목회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체를 이루어 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으로써, 교인들의 영적인 면만 아니라 생활의 영역까지 일생을 통해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전도자의 사명과 함께 교육자, 목양자의 위치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직분을 완수하는 주요 인물이다. 군에서는 장병의 필승의지 함양, 완벽한 교육 훈련 성과와 함께 병원관리 즉 인사·시설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과 사기는 단결의 절대적 요소이며 전쟁시 또는 평상시 필승의 요체가 되기 때문에 군종목사의 성직 활동과 상담은 대단히 중요하다.

군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장병들을 돌보는 사역이다.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반적인 면을 보살피는 사역자이다. 군종목사는 전도자의 사명과 목양자의 위치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명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종목사는 모든 장병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다. 그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에도 부대의 임무와 개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병들을 돌보아야 한다.¹³⁵⁾

3. 발전적 제언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5)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대전: 육군인쇄창, 1998), 38.

단지 지식을 전달한 것으로 교육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이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서로 발전을 얻도록 도와줌을 의미한다. 군 조직에서 부족한 진정한 만남을 보충하려고 개별 방문 또는 상담 등의 심도 있는 배려가 군 종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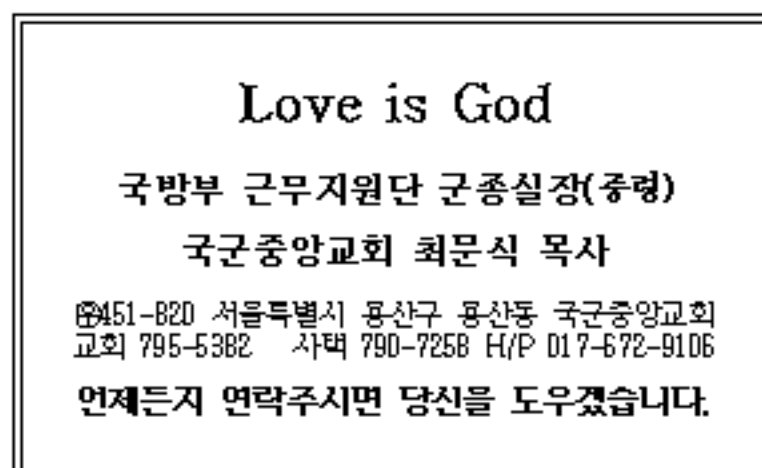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교육적 목회를 실현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군 종목사는 찾아가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구속하신 것(눅 1:68)처럼 병사를 찾아가서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¹³⁶⁾ 군 종목사는 건강한 양들은 우리에 놓아두고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 나서야 한다 (마 18:12). 장병들을 찾아가는 선도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하는 일이다.

장병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굳혀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격리된 사회인 군대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군 종목사에게 주어진 활동이다. 군대에서의 상담이 일반상담과 다른 점이 바로 찾아가는 상담이다. 일반상담은 내담자(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취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기다리는 상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자로서의 군종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찾아가는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움의 카드와 군 전산망에 있는 군종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36) Thomas C. Oden, 목회신학 : 교역의 본질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이기춘 역 (서울 : 한국 신학 연구소, 1991), 252-53.



도움의 카드란 장병들이 손쉽게 군종목사에게 상담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초청의 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을 기록한 명함식의 카드이다¹³⁷⁾. 이 도움의 카드를 전입 신병 및 모든 장병들이 지니고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군종목사에게 도움 및 상담을 요청한 자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는, 군종목사의 상담은 세속상담과는 구분이 있는 목회상담이어야 한다. 투루나이젠은 이러한 군종목사의 활동을 ‘개인적 설교’이며, ‘상담’이라 하였다.¹³⁸⁾ 투루나이젠의 말처럼 군종목사가 장병들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대화에 들어간다. 정말 군종목사와 장병들과의 대화는 ‘목회 대화’이다. 목회 대화는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역하는 죄인임을 힘차게 증언해 주는 대화이다. 여기서 생기는 위로의 힘은 전적으로 용서가 조건 없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곧 모든 율법적인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다.

투루나이젠은 목회 대화의 원리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친구’, ‘아버지’, ‘조력자’, ‘계약의 상대자’로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늘에 군림하시는 지존하신 자로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137) 상단에 있는 것이 도움의 카드이다. 편집 상 실제 크기와는 차이가 있다.

138) E. T. Nizen, 목회학 원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 성서간행사, 1987), 56.

군종목사의 상담 및 방문을 통한 목회 대화의 근거는 예수님의 상담 사역에 근거한다(요 4:4-30). 군목이 장병들을 만나 돌보는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은 장병들의 요구 시점에서 복음의 내적 의미를 대화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기능이고, 이론이나 해석이라기보다는 생동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행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군목의 선도활동은 병사들과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특징을 나타낸다. 군종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목회적 대화와 돌봄을 통해 그들의 내적 변화를 통한 외적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이것은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한 것이다. 군종목사가 장병들과의 목회적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고통당하는 장병들에게 열려져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군종목사의 교육적 목회 상담 활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셋째는, 군종목사가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담 관계이든지 상담자의 인격과 가치관, 태도, 그리고 신앙이 일차적 중요성을 지닌다.¹³⁹⁾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성공적인 상담에 있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화적 관계가 필수적이다.¹⁴⁰⁾ 이런 관계는 상담자의 노력과 내담자의 태도, 동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상담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런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감정이입, 은화함, 순수함 등의 상담자의 특성은 이 친화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담에 임하는 군종목사는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 행동, 이 세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의 문제는 그 진원을 추적할 때에 사회 구조의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고, 인간의 정서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전인의 문제로 화하기 때문에 문제의 진원을 해결하였다고 해서 전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¹⁴¹⁾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무엇으로 기인되었든

139) Gary R. Collins, 상담심리학 입문, 190.

140) Ibid., 195.

141) Ibid., 198-199.

지 그 문제의 해결은 전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는, 군종목사는 상담에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군 조직의 특성상 군종목사는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을 상담해야 할 때도 많이 있다. 이들의 신앙과 관련된 분야 외에도 가정, 인간 관계, 복무 부적응 문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 또한 인간화를 장으로 하는 교육의 한 부분일 것이다.

매월 정규적인 인격지도 교육만으로 인간화의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실제 문제 중심의 개별지도가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로 계획된 방문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의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의 배려와 구체적 방안이 부대 단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군종목사는 더욱 적극적인 방문 활동을 통해 장병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상담자 학교를 통해 상담인력을 확보하라.

군종목사가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하기는 쉽지 않다. 장병들 또한 군종목사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경직된 부대 분위기, 격오지 등의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담자 학교이다. 상담자 학교란 소대 1명 내지는 중대 1명 정도를 상담자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상담교육을 정기적이며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자대에서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게끔 배려하는 것이다. 상담자 선발 기준은 우선 신앙이 좋으며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군에서의 장병교육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이 개인의 삶의 문제들, 내적 갈등, 또 불안정한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종목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상담의 기능이며, 이런 기능은 효율적인 교육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군 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보살피는 정신적인 지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을 연구했다면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기독교 장병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기독교 장병 신앙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대 내 여러 종교활동, 교육활동, 인격지도교육, 상담, 방문 등 각종 군종활동 프로그램 모두가 교육목회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성 있게 시행되게 하여 효과적인 기독교장병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1절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형성은 신앙생활의 요소인 예배, 설교, 성경, 기독교 교육, 상담, 세례, 봉사, 교제, 전도, 신앙적 가정생활을 포함한 개인의 경건 생활 등 이러한 신앙요소들이 온전히 결합될 때에 온전한 신앙으로 정립되어진다. 기독교 장병 교육의 방법도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 교육,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에 입각하여 접근을 했다. 2절에서는 우선 예배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례 중심의 예배는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한 교육적인 행위들을 연구함을 통해 장병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교육적인 의미와 실재를 나타내고자 한다. 아울러 발전적 제언을 통해 본인이 섬기는 군인교회에서 실시되는 예배의 모델을 제시함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3절에서는 우선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장병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적 제언을 하며 실제적으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자 했다. 4절에서는 인격지도의 일반적 고찰, 그리고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했으며 마지막 5절에서는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적 상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군 현장에서의 교육적 상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효과적인 상담을 통하여 교육적 목회를 실현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본 장은 기독교 장병 교육의 방법과 예배, 말씀, 성례에 의한 예전, 주일학교, 인격지도, 상담을 통한 기독교 장병 교육의 실재를 논의함과 동시에 이론적 고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실제적 기독교 장병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발전적 제언을 함으로 기독교 장병 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연구를 토대로 기독교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

신앙적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본 교육 프로그램은 제3장에서 다룬 실제적 방법론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배경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이 기독 장병에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타당성에 대한 실제적 모델이며 양적 연구물이다.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병과 참여하지 않는 장병의 신앙적 동일성, 긍정성, 수용성, 행동성의 차이가 현격하며 교육목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즉 본 교육목회 프로그램의 참여한 장병들은 자신이 기독 장병임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깊이 수용할 뿐 아니라 삶에서 행동적 결단을 내리는 자리까지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개념 증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예방, 분노조절, 우울증 감소 등의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단순한 신앙적 차원의 성장에서 머물지 않고 장병 개인과 동료 및 부대의 사고예방에 매우 의미있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선행연구와 주요내용 및 시행과 결과를 밝힌다. 제1절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5단계의 절차에 입각한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제2절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총 4회기로서 각 회기의 활동과 종결 및 과제를 다룬다. 제3절에서는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와 연구대상 및 프로그램 평가를 다룬다. 특히 평가내용으로서 측정요인 및 도구, 분석 및 절차, 연구의 제한점을 밝힌다. 제4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통계적 의의와 효과를 수치와 표로서 제시한다.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장병들의 기독교 신앙적 자아개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형득(1992)의 집단상담 모형을 채택했다. 세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신앙적 성장에 맞게 수정했으며, 네 번째로는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 실시를 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실시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제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는데, 제 1절에서는 자아개념의 정의와 형성과정 및 자아개념과 인간행동과의 관계를 살폈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아개념은 매우 중요한 인간 발달론적 과제로서 그 형성과정의 중요할 뿐 아니라 자아개념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신앙적 자아개념을 살폈다. 신앙적 자아개념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경적 자아개념과 그것이 신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으며 신앙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형득의 집단상담 모형을 도입했다. 개인상담에 비해 보다 상호 개인 접촉이 많고, 개인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시간, 에너지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현실적이고 실제생활에 근접한 사회 장면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개인적인 조언보다는 집단적인 공통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적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은 상호간의 깊은 사회적 교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기 전에 집단 압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알아야 한다거나 자기와 성격, 생활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습득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소속감, 및 협동심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나 자기의 관심사나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의 반응, 조언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동료나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와 자기 문제에 관한 검토, 분석을 기피하거나 유보하기를 원하고, 자기 노출에 관해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필요하다.

따라서 이형득의 집단 상담 모형은 군대환경에 적합할 뿐 아니라 집단 상호간의 역동을 통한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이라는 목적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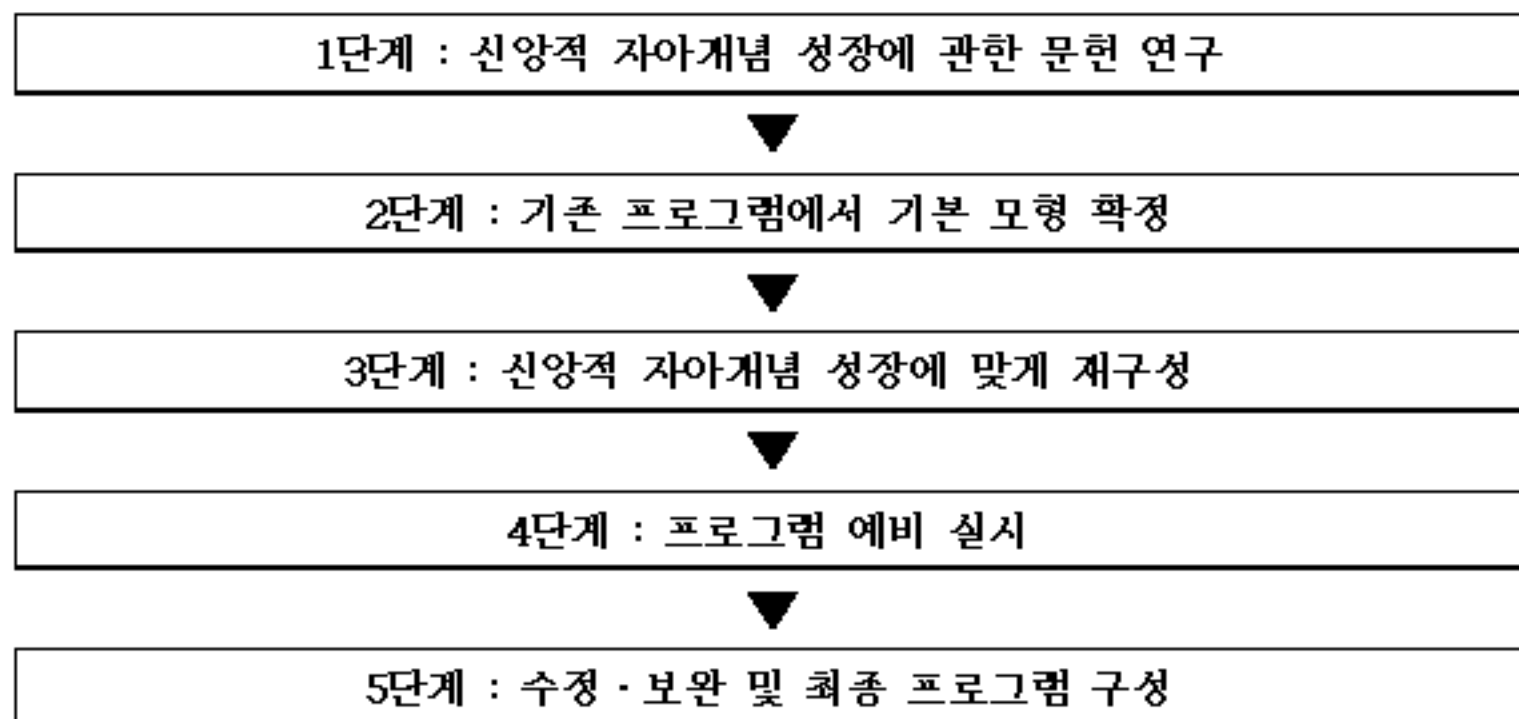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서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집단상담의 모형을 도입하고 여기에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해 수정하였다. 기독교 신앙과 자아개념은 이미 살핀 대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로서 신앙적 자아개념의 자리를 확인했다. 즉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적 자아개념이 확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소명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존재론적으로 실존하는 현장에서의 결단과 행동의 의미로서 삶에 대해 적극적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로 집단상담의 과정에 입각한 예비적 준비와 더불어 다섯째 단계 수정정보안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집단 상담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첫째단계는 분위기 형성 및 유지로 참여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고, 집단원간에 상호 평가를 하며, 리더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야기의 내용이나 의사소통의 양식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집단원들끼리 서로의 유사점을 찾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이다. 탐색단계에서 생산적인 작업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집단원들 사이에서 주도권 쟁탈을 벌이게 되고 집단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저항이 표면화된다. 리더가 불편감이나 저항에 대한 방어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 집단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작업단계이다. 집단원들이 높은 사기와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집단원들의 통찰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네 번째 단계로 종결단계이다. 집단 종결의 종말이 가까워오는데 대한 집단원들의 느낌을 토의하고, 집단원 각자의 첫 면접 기록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며 집단에서의 통찰이 행동 방향으로 지속되도록 상기시킨다.

위의 4단계는 전체 회기를 진행하는데 적용될 뿐 아니라 매 회기 적용된다. 본 프로그램의 자아 동일성, 긍정성, 수용성, 행동성 각 회기 진행에 있어서 집단상담의 4단계 과정을 적용했다. 동일성은 참여단계적 성격을, 긍정성은 탐색단계의 성격을,

수용성은 작업단계의 성격을, 행동성은 종결단계의 성격을 띠었고, 한편으로 각 단계는 4단계를 포함한다. 즉 동일성의 단계를 예를 들면, 동일성 단계는 참여단계적 성격을 띠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단계, 탐색단계, 작업단계, 종결단계의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일성 단계는 크게 보면 참여단계적 성격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자아개념의 동일성에 대한 전체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신앙적 자아 동일성 증진을 위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에 대한 이해를, 신앙적 자아 긍정성 증진을 위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긍정하기를,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위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신앙적 자아 행동성 증진을 위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감을 자기고 행동하기로 구성했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 2 절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첫째 신앙적 자아 동일성을 증진하여 기독교인으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둘째, 신앙적 자아 긍정성을 증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긍정하고, 셋째,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증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이해하게 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넷째,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증진하여 기독 장병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독장병들의 신앙적 자아개념에 관한 평가지는 신앙적 자아 동일성, 자아 긍정성, 자아 수용성, 자아 행동성으로 구성된 4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Pitts가 1968년에 개발한 "Tennessee Self Concept"를 정원식이 한국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이를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회기 - 신앙적 자아 동일성 증진

| 1 회기 |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에 대한 이해 |
|-----------------|---|
| 활 동 | 1.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 실시 2. 자기소개(별명, 가족사항, 군입대전 경력 및 자기의 특징 등) 3. 신앙 경력 소개 4. 군입대시 느꼈던 신앙적 위기에 대해 말하기 5. 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기 |
| 총 결 및 과 제 | 1.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눈다. 2.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적는다 |

첫 회기는 이미 설명한 대로 전체적인 참여단계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기

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회기의 참여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 검사 실시 및 자기소개로, 탐색단계에서는 신앙경력 소개로, 실행단계에서는 군입대시 느꼈던 신앙적 위기에 대해 말하기와 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기로, 종결단계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과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적게 한다.

2. 2 회기 : 신앙적 자아 긍정성 증진

| 3 회기 |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긍정하기 |
|-----------------|---|
| 활 동 | 1. 기독교 장병으로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 2. 기독교 장병으로서 내가 느꼈던 기쁜 점에 대해서 말하기 3. 기독교 장병으로서 나에 대해서 칭찬하기 4. 서로 군생활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음을 격려하기 |
| 종 결 및 과 제 | 1.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눈다. 2.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긍정할 수 있음을 적는다 |

두 번째 회기는 전체적으로 탐색단계로 기독교 장병으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회기의 참여단계로 지난 회기의 느낌을 나누고, 탐색단계로 기독교 장병으로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와 기독교 장병으로서 내가 느꼈던 기쁜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행단계로서 기독교 장병으로서 나에 대해서 칭찬하기와 서로 군 생활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음을 격려하기로, 종결단계로서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긍정할 수 있음을 적게 한다.

3. 3 회기 : 신앙적 자아 수용성 증진

| 3 회기 |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기 |
|-----------------|---|
| 활 동 | 1. 신앙생활을 할 때 내무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2.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야기하기 3. 내가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4. 내가 신앙인으로서 느꼈던 신앙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5. 각자 본인이 기독교 장병임을 고백하는 기도하기 |
| 종 결 및 과 제 | 1.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눈다. 2.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에 대해 적는다 |

세 번째 회기는 전체적으로 실행단계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기는 참여단계로서 지난 회기의 느낀 점 나누기와 탐색단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무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야기하기로, 실행단계로서 내가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내가 신앙인으로서 느꼈던 신앙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각자 본인이 기독교 장병임을 고백하는 기도하기로, 종결단계로서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지에 대해 적게 한다.

4. 4 회기 : 신앙적 자아 행동성 증진

| 4 회기 |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
|-----------------|--|
| 활 동 | 1. 기독교 장병으로서 대인관계에서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 2. 서로 짝을 지어 그 목표 행동을 연습하기 3. 서로 행동 연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4. 앞으로 군 생활 및 전역 이후 신앙생활을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
| 총 결 및 과 제 | 1.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눈다. 2.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음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음을 적는다. |

네 번째 회기는 전체적으로 종결단계로서 기독교 장병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동하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단계로 지난 회기에 느낀 점 나누기와, 탐색단계로 기독교 장병으로서 대인관계에서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와 실행단계로서 서로 짝을 지어 그 목표행동을 연습하기, 서로 행동연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앞으로 군 생활 및 전역 이후 신앙생활을 행동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종결단계로서 이번 회기에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음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음을 적게 한다.

제 3 절 프로그램 시행

1. 절차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성장 집단”이라는 명칭으로 육군○○부대 군인교회에서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2002년 10월 30일 각 회기 당 1시간씩 총 4시간을 실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이 논문의 뒤에 있는 부록 1에 있는 설문지

를 이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시행 후에 다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은 총 100명이었다. 이들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으로 50명 씩 임의 배정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간 유실된 인원은 없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각각 사전검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후에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실험집단에게는 앞에서 설명한 4회기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앞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설문 의 조사 내용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이 연구에서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은 두 집단간의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 양 집단의 어떤 특징으로 인하여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그러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자아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연령, 학력, 가정환경, 신앙경력, 군 생활 긍정도, 신앙 긍정도, 동료관계, 부대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즉 이 두 집단의 서로 다른 결과가 교육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두 집단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했다. 연령의 예를 들면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이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면 그 이유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것이다. 만약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다면 4가지 척도가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더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라거나, 신앙경력이 더 많거나, 군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험대상이 많거나 동료관계가 좋거나 부대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4가지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의 검사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검

토하기 위해서 카이자승 검증을 사용하였다. 이 검증결과 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검증에서 사용한 8가지 고려요인의 유의 확률이 모두 0.05보다 훨씬 큰 값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신앙긍정도가 비교적 적은 값이 나왔으니 그 값도 0.05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8가지 고려사항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집단의 설문지 응답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러한 8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므로 교육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 실험, 통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카이자승 검증 결과

| 특성 | 값 | 유의도 |
|---------|-------|------|
| 연령 | 1,278 | .865 |
| 학력 | 5,646 | .130 |
| 가정환경 | 1,551 | .671 |
| 신앙경력 | 3,306 | .347 |
| 군생활 긍정도 | .956 | .812 |
| 신앙 긍정도 | 6,590 | .242 |
| 동료관계 | 6,328 | .915 |
| 부대만족도 | .964 | .562 |

3. 프로그램 평가

가. 측정 요인 및 도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앙적 자아개념에 관한 설문지는 신앙적 자아 동일성, 자아 긍정성, 자아 수용성, 자아 행동성으로 구성된 4가지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검사지가 신뢰할 만한 검사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로 크론바 α 값을 검사했다. 이것은 질문간의 일맥상통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하였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록 1>에 있는 질문 II-4번 항목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다”는 항목을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II-7번 항목의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야 설문간의 일치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설문 응답자의 반응에서 이러한 일치성이 많이 없으면 이 응답은 매우 무성의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크론바 α 값(Cronbach alpha)을 계산했는데 이 검사지의 신뢰도는 = .741(N=130)인데, 본 검사에서 측정한 값은 Cronbach alpha=.9661(N=100)이었다. 이 값이 클수록 일치성이 있으므로 이 검사에서 이 설문 응답지는 일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척도 별 값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하위차원 척도의 문항 번호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1)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

이 점수는 한 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자기를 신앙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II-1부터 II-10번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의 신뢰도는 0.991로 나타나 0.741보다 크므로 일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

이 점수는 한 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신앙적 자아 긍정성의 척도로는 <부록 1>에 있는 설문지 II-11부터 II-20의 항목들이 사용되었다. 이 설문들의 신뢰도는 0.932로 나타나 역시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

이 점수는 한 개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보며 느끼는지를 알아본다. 개인의 자기 만족과 인정은 자아 수용성을 반영한다.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항목 II-21부터 II-30을 사용하였으며 그 신뢰도는 0.941로 일치성이 가장 높았다.

(4)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

이 점수는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며 표현하는 정도와 경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앙인으로서 행동방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 Ⅱ-31부터 Ⅱ-40이 사용되었으며 이 신뢰도 역시 기준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일치성에 문제가 없었다.

〈표 2〉 하위 차원 척도의 문항 번호 및 신뢰도

| 하위 차원 | 문항 번호 | 신뢰도 (Cronbach α) |
|------------|-------|-----------------------------|
| 신앙적 자아 동일성 | 1~10 | .881 |
| 신앙적 자아 긍정성 | 11~20 | .932 |
| 신앙적 자아 수용성 | 21~30 | .941 |
| 신앙적 자아 행동성 | 31~40 | .884 |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의 하위차원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있다. 이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즉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p값이 0.001 이하로 모두 나타났는데, 이는 이 하위 척도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표 3〉 각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

| 구 분 | 동일성 | 긍정성 | 수용성 | 행동성 |
|------------|-----------|----------|-----------|------|
| 신앙적 자아 동일성 | 1.00 | | | |
| 신앙적 자아 긍정성 | .8958 *** | 1.00 | | |
| 신앙적 자아 수용성 | .9166 *** | .8955*** | 1.00 | |
| 신앙적 자아 행동성 | .8274*** | .8663*** | .8894 *** | 1.00 |

주: ***는 $p < .001$ 인 것을 나타냄.

나.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즉 두 집단에게 먼저 〈부록 1〉에 있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 한 후에 통제집단은 아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반면에,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시간에 걸쳐서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다시 두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설문지로 질문을 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 절차에 따라 (SPSS PC+) 프로그램의 실시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two-factor experiments with repeated measurements)'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기대한 것은 첫째로 신앙적 자아 동일성 증진 부분에서 사병들이 군 입대 전에 자신의 별명이라든지, 가족사항이나 군 입대하기 전에 자신이 하던 일, 그리고 자신의 신앙경험 등을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병사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자아 동일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은 이것을 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받은 설문조사와 사후에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로 신앙적 자아 긍정성 증진 부분에서 기독 장병으로서 장점 말하기와 기독 장병으로서 느낀 기쁜 점을 말함으로써, 그리고 기독 장병으로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집단 안에서 발표하므로 자아 긍정성 증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자아 긍정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은 이것을 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받은 설문조사와 사후에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세 번째로 신앙적 자아 수용성 증진 부분에서 기독 장병으로서 내무반에서 겪는 어려움과 죄책감과 좌절감,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므로써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은 이것을 하

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받은 설문조사와 사후에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네 번째로 신앙적 자아 행동성 증진 부분에서 기독 장병으로서 대인관계에서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목표 행동을 전체 앞에서 실시해보고, 상호 연습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군 생활 및 전역 이후 신앙생활을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자아 행동성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은 이것을 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받은 설문조사와 사후에 받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하였다.

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프로그램을 실시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장병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을 1회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연구 대상들의 생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 변인이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들이 20여개 이상 내무실에서 분포하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태도변인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전-사후 검증에 따른 연습효과가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신앙적 자아개념에 대한 검사이고 교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지속해왔던 병사들은 좋게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연구자는 이런 저해요소에 대해 예상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 자기보고에 충실하도록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나 연습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 4 절 연구 결과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 목회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술한 연구 방법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 전 양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전검사에서 양 집단간에 네 가지 하위척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양집단간에 이질성이 없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기술 통계량은 <표 4>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값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아통일성 지표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은 2.5303인데 통제집단은 2.6545로 비슷한 값이다. 다른 세 지표 역시 차이가 크지 않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 기술 통계량

| | 집 단 | N | Mean | Std. Deviation | Std. Error Mean |
|--------|------|----|--------|-------------------|--------------------|
| 자아 동일성 | 실험집단 | 50 | 2.5303 | .9009 | .1568 |
| | 통제집단 | 50 | 2.6545 | .9282 | .1616 |
| 자아 긍정성 | 실험집단 | 50 | 2.8424 | .8775 | .1528 |
| | 통제집단 | 50 | 2.9424 | .8074 | .1406 |
| 자아 수용성 | 실험집단 | 50 | 2.5939 | .9727 | .1693 |
| | 통제집단 | 50 | 2.6333 | .9433 | .1642 |
| 자아 행동성 | 실험집단 | 50 | 2.7303 | .8516 | .1483 |
| | 통제집단 | 50 | 2.7515 | .9193 | .1600 |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 집단간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위 척도별 사전 검사 결과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이 <표 5>에 나타난 평균값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자아 동일성 척도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이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러한 평균값들의 표준편차이다. 부호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오히려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평균값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t값은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

다. 유의수준이란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0.5 이상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이질성이 없다, 즉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하위 척도 모두에서 유의수준이 0.5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양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즉 이 두 집단은 이질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전검사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양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확인했다.

<표 5> 하위 척도별 사전검사 결과

| | 집 단 | t-test for Equality of Means | | | |
|--------|------|------------------------------|------|------------|-------|
| | | t | 유의수준 | 평균 | 표준편차 |
| 자아 동일성 | 실험집단 | -.552 | .583 | -.1242 | .2252 |
| | 통제집단 | -.552 | .583 | -.1242 | .2252 |
| 자아 긍정성 | 실험집단 | -.482 | .632 | -.1000 | .2076 |
| | 통제집단 | -.482 | .632 | -.1000 | .2076 |
| 자아 수용성 | 실험집단 | -.167 | .868 | -3.939E-02 | .2359 |
| | 통제집단 | -.167 | .868 | -3.939E-02 | .2359 |
| 자아 행동성 | 실험집단 | -.097 | .923 | -2.121E-02 | .2181 |
| | 통제집단 | -.097 | .923 | -2.121E-02 | .2181 |

다음으로는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각 하위 척도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만 프로그램 실시 후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에 이 두 집단의 검사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사한 결과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실험집단의 하위 척도별 사전-사후 결과에 대한 Paired-t 검증을 실시했다. 검사결과를 먼저 요약하면 모든 하위 척도에 대해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는 <표 6> 과 같다.

이 <표 6> 를 설명하면 첫 번째 항목 즉 자아 동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얻은 답의 값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에 한 검사의 결과 값을 뺀 것의 평균이 -0.7909였다. t값은 -4.233이었으며, 이것의 유의수준을 말해주는 p 값은 0.000으로 0.05보다 적게 나타났으므로 이 두 검사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값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항목 즉 자아 긍정성도 프로그램 실시효과를 보면 <표 6> 의 맨 마지막 열의 값이 0.02로 0.05보다 적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한 검사 값과 이후에 실시한 값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른 두 항목도 마찬가지였다.

<표 6> 실험집단의 하위 척도별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한 paired-t 검증 결과

| | | Paired Differences | | | |
|-------|--------------|--------------------|---------------|--------|----------------|
| | | Mean | Std Deviation | t | Sig (2-tailed) |
| Pair1 | 자아 동일성 사전-사후 | -.7909 | 1.0734 | -4.233 | .000 |
| Pair2 | 자아 긍정성 사전-사후 | -.6030 | 1.0309 | -3.360 | .002 |
| Pair3 | 자아 수용성 사전-사후 | -.7727 | 1.1356 | -3.909 | .000 |
| Pair4 | 자아 행동성 사전-사후 | -.8091 | 1.0444 | -4.450 | .000 |

다음으로 각 하위 척도들의 사전-사후 반복측정 결과를 논하겠다.

1. 신앙적 자아 동일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의 실시가 신앙적 자아 동일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동일성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앙적 자아 동일성 검사 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평균변화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변산원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 자승 | F 값 | 유의도 |
|------------------|-------|-----|-------|--------|------|
| 시 간 (사전-사후) | 4.547 | 1 | 4.547 | 13.113 | .001 |
| 상호 작용 (시간-집단) | 5.813 | 1 | 5.813 | 16.762 | .000 |
| 오차(1) | .347 | 64 | .347 | | |
| 집 단 | 2.881 | 1 | 2.881 | 1.966 | .166 |
| 오차(2) | 1.465 | 64 | 1.465 | | |

첫 번째 줄의 시간(사전-사후) 값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의 제곱을 각각 합한 것이 자승합이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F-test의 결과 유의도가 0.001로 나타나 0.05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매우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값이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줄의 상호집단(시간 -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의 값의 변화가 동일한가를 측정한 것이다. 유의도를 나타내는 맨 마지막 칼럼의 p값이 매우 작아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 간의 값의 변화가 매우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줄의 집단에 대한 유의도를 나타내는 p값이 0.166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다, 즉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의 좌측하단에 있는 1이란 것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두 집단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우측하단의 2는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검사한 설문검사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실선으로 나타낸 것은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통제집단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두 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산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이 양 시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의 좌측을 보면 통제집단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동일성에 대한 실험집단의 평균값(mean)이 2.5303이므로 〈그림 1〉에서 24와 26 사이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545로 〈그림 1〉에서 26보다 조금 위에 표시되어 있다. 이 양자의 차이는 0.1242로 통제집단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그 차이가 바뀌어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표 4〉의 평균값 2.5303에 〈표 6〉의 0.7909를 더한 3.3212가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수치로 〈그림 1〉의 우측 위에 나타난 점의 값이다.

〈그림 1〉은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쉽게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4〉와 〈표 6〉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 그림이 작성되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에 검사한 결과가 미미한 수준의 값의 하락이 있었던 반면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현저한 값의 개선이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 안에서 군입대시 느꼈던 신앙적 위기 및 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더욱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으로 보여준다.

〈그림 1〉 신앙적 자아 동일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검사한 결과가 월등히 통제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신앙적 자아 동일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을 보여준다. 즉 서로 군 입대전의 자기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느끼고, 집단 안에서 군입대시 느꼈던 신앙적 위기 및 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신앙인으로서 인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그렇지 않은 병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앙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앙적 자아 긍정성에 미치는 효과

두 번째로 프로그램 실시가 신앙적 자아 긍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도 역시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8〉에, 변화의 정도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줄의 시간(사전-사후) 값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값을 제공하여 합한 것이 자승합이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F-test의 결과 유의도가 0.012로 0.05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매우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값이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줄의 상호집단(시간 -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 간의 값의 변화가 동일한가를 측정한 것이다. 유의도를 나타내는 맨 마지막 칼럼의 p값이 0.001이므로 두 집단 간의 값의 변화가 매우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줄의 집단에 대한 유의도를 나타내는 p값이 0.214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

〈표 8〉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변산원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 자승 | F 값 | 유의도 |
|------------------|--------|-----|-------|--------|------|
| 시 간 (사전·사후) | 2.164 | 1 | 2.164 | 6.726 | .012 |
| 상호 작용 (시간-집단) | 3.937 | 1 | 3.973 | 12.350 | .001 |
| 오차(1) | 20.588 | 64 | .322 | | |
| 집 단 | 2.013 | 1 | 2.014 | 1.572 | .214 |
| 오차(2) | 81.937 | 64 | 1.280 | | |

〈그림 2〉는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쉽게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4〉와 〈표 6〉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 그림이 작성되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에 검사한 결과가 미미한 수준의 값의 하락이 있었던 반면에,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현저한 값의 개선이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 안에서 기독교 장병으로서 자신이 느꼈던 기쁜 점을 말하고 기독교 장병으로서 자신에 대해 칭찬하거나 군생활을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음을 격려하게 함으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더욱 자신의 신앙적 자아를 긍정하게 되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

었음으로 보여준다.

〈그림 2〉 신앙적 자아 긍정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3. 신앙적 자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실시가 신앙적 자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9〉에, 변화의 정도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 역시 앞의 두 경우와 동일했다.

〈표 9〉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 변산원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 자승 | F 값 | 유의도 |
|------------------|---------|-----|-------|--------|------|
| 시 간 (사전·사후) | 6.025 | 1 | 6.025 | 15.400 | .000 |
| 상호 작용 (시간-집단) | 3.938 | 1 | 3.938 | 10.097 | .002 |
| 오차(1) | 25.037 | 64 | .391 | | |
| 집 단 | 3.091 | 1 | 3.091 | 1.970 | .165 |
| 오차(2) | 100.411 | 64 | .569 | | |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시간 값은 F-test의 결과 유의도가 0.000로 나타나 매우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값이 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간의 값의 변화가 동일한가를 측정하는 두 번째 줄의 상호집단(시간 - 집단)은 유의도를 나타내는 맨 마지막 칼럼의 p값이 0.002로 나타났으므로 두 집단간의 값의 변화가 매우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넷째 줄의 집단에 대한 유의도를 나타내는 p값이 0.165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는 이러한 차이를 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두 집단의 평균값은 실험집단은 2.5939였고 (표 4 참고) 통제집단은 2.6333이었다. 그래서 〈그림 3〉에서는 이 두 집단의 사전 값이 거의 유사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두 집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약간 증가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0.7727이 늘어나서 3.3666이었다.

<그림 3> 신앙적 자아 수용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 번째 회기는 실행단계로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집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무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과 신앙인으로서 겪었던 신앙체험에 대해 말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깊이 수용하고 생활까지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장병들이 더욱 자신의 신앙적 자아를 수용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자 본인이 기독교 장병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4. 신앙적 자아 행동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실시가 신앙적 자아 행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역시 양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10>에, 변화의 정도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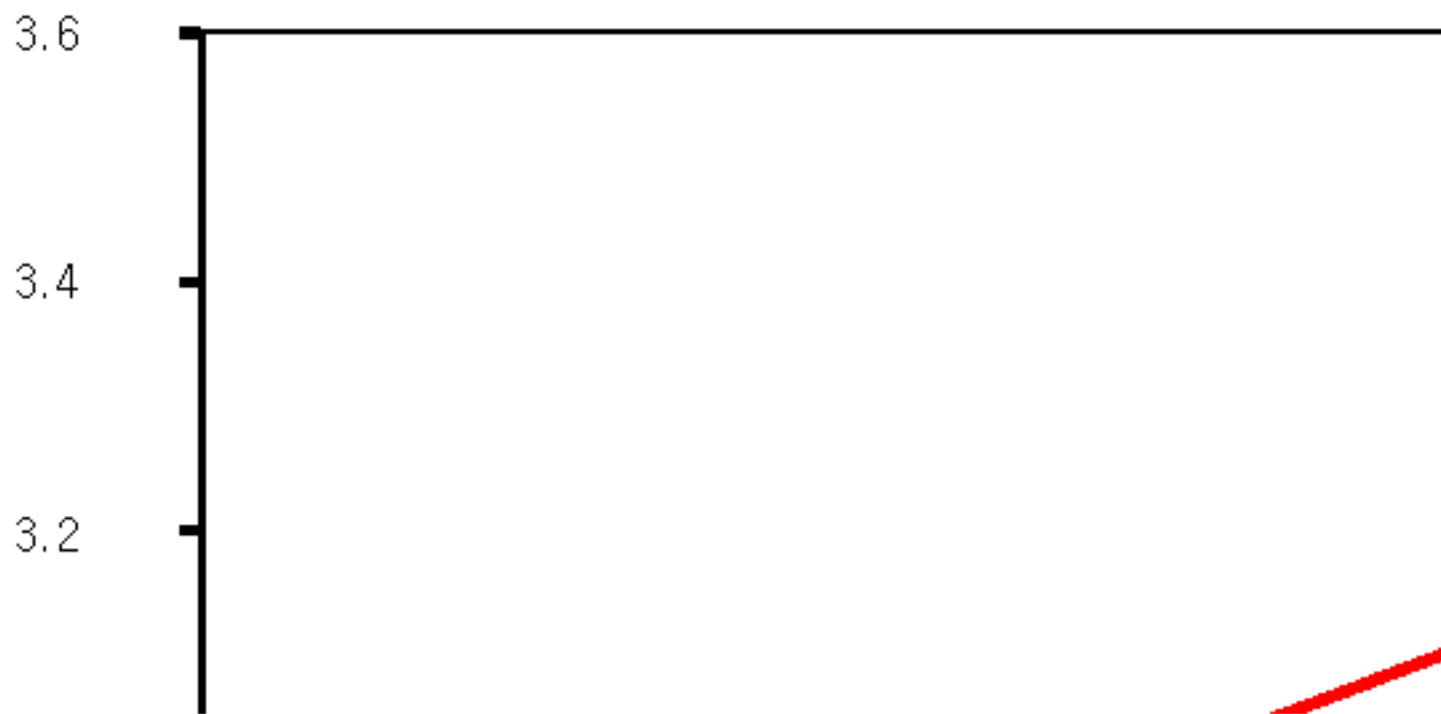
| 변산원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 자승 | F 값 | 유의도 |
|------------------|--------|-----|-------|--------|------|
| 시 간 (사전·사후) | 7.422 | 1 | 7.422 | 22.833 | .000 |
| 상호 작용 (시간-집단) | 3.700 | 1 | 3.700 | 11.383 | .001 |
| 오차(1) | 20.803 | 64 | .325 | | |
| 집 단 | 3.246 | 1 | 3.246 | 2.414 | .125 |
| 오차(2) | 86.055 | 64 | 1.345 | | |

첫 번째 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시간(사전-사후) 값은 F-test의 결과 유의도가 0.000으로 나타나 0.05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매우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값이 사전에 실시한 검사에 비해서 크다.

두 번째 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간의 값의 변화가 동일한가를 측정한 상호집단(시간 - 집단)은 유의도가 0.001로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집단간의 값의 변화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줄의 집단에 대한 유의도를 나타내는 p값이 0.125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다, 즉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 4〉이다. 〈표 4〉의 맨 마지막 줄의 자아 행동성의 평균값은 통제집단은 2.7515이고, 실험집단의 평균값(mean)이 2.7303이므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값이 모두 2.7 근처에 표시되어 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통제집단은 수치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실험집단의 평균값은 〈표 6〉의 맨 마지막 줄에서 보는 바와 같이 0.8091이 증가하여 실험집단의 평균값은 3.5394로 〈그림 4〉에서 3.6 약간 밑에 표시된 바와 같이 통제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신앙적 자아 행동성 척도의 사전-사후 평균변화



이것은 장병들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짝을 지어 그것을 연습하고,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 등에 대한 약간의 인위적인 듯한 훈련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독교 장병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른 행동하도록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기독교 신앙인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제 5 장

논의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된 결론을 제시한 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3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인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 교육과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증해보자 하였다. 다시 말해 예전의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 성례 중심의 예배와 주일학교와 기독교 장병교육, 인격지도와 기독교 장병교육, 상담에 의한 기독교 장병교육이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 및 긍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양적 검증을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의 보다 발전적 수용과 변화를 도모하자는 의도이고 방법론적 제안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통계적 절차에 의한 분석방법을 사용했으며 연구 결과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참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신앙적 자아 동일성, 자아 긍정성, 자아 수용성, 자아 행동성으로 구성된 하위 척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 목회 프로그램이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가. 기독교 신앙적 자아 동일성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나. 기독교 신앙적 자아 긍정성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다. 기독교 신앙적 자아 수용성

연구문제 3에 대한 연구결과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라. 기독교 신앙적 자아 행동성

연구문제 4에 대한 연구결과 기독교 신앙적 자아 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2.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이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교육목회 프로그램은 신앙적 자아 동일성, 자아 긍정성, 자아 수용성, 자아 행동성의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 동일성과 자아 긍정성 척도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 검사결과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더욱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목회 프로그램이 단기간의 교육경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군 입대이후 신앙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는 기독교장병들에게 신앙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기정체감과 효능감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로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의미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 장병의 자아 동일성, 긍정성, 수용성, 행동성을 향상을 위한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교육 및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전으로서 예배, 말씀, 성례 중심의 예배와 주일학교와 기독교 장병교육, 인격지도와 기독교 장병교육, 상담과 기독교 장병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제 2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목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교육과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그 효용성과 가치를 검증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독교 장병 교육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기독교 장병들의 청년기적 갈등과 위기 및 자아개념에 관하여 고찰하고 교육 목회적 관점에서 이들의 신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3장 실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목회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특히 신앙적 자아개념의 하위 척도로서 신앙적 자아 동일성, 자아 수용성, 자아 긍정성, 자아 행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목회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네 가지이다.

첫째,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동일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셋째,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긍정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넷째,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육군○○부대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장병 100명을 대상으로 5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임의 배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네 가지 척도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양 집단이 네 가지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교육목회프로그램을 4회기에 걸쳐 실시한 후 양 집단에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적 자아 동일성 검사에서 나타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신앙적 자아 동일성의 변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신앙적 자아 수용성 검사에서 나타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 분석에서 신앙적 자아 수용성의 변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신앙적 자아 긍정성 검사에서 나타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신앙적 자아 긍정성의 변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신앙적 자아 행동성 검사에서 나타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신앙적 자아 행동성의 변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 3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동일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둘째,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셋째,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긍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넷째,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목회프로그램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적 자아 행동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한점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육군○○부대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참가 장병들의 실험 이외의 생활을 엄격히 통제할 수 없고, 자기 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교육목회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신앙적 자아개념에 관하여 체계적인 이론적 고찰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회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는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교육과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의 필요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신앙적 자아개념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신앙적 자아 개념이 교육 및 집단상담 경험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했으며, 집단교육의 모형으로서 예배 교육의 의미, 말씀 중심의 예배, 성례 중심의 예배 및 주일학교와 기독교 장병교육, 인격지도와 기독교 장병교육, 상담과 기독교 장병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많은 기독교 장병들에게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교육과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을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함으로써 군 입대이후 신앙적 자아개념에서 위기와 좌절, 갈등을 겪는 그들의 심적 갈등과 고민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고예방, 자살예방, 분노조절, 우울증 극복을 통한 건강하고 씩씩한 군 장병 양성이라는 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독교 장병으로서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육, 해, 공군 전 영역에서 300여명의 군종목사들이 예전을 통한 기독교 전통교육과 제자화를 통한 삶의 교육으로서 예배인도, 말씀선포, 성례 집례를 하고 있

으며, 일천 여개의 국군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인격지도 및 상담을 통한 기독교 장병교육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분분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장병의 신앙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따르면 교육목회프로그램은 신앙적 자아개념의 네 가지 하위척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대상을 서울 군교 육군○○부대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일반 심리학 이론에서 정립된 자아개념 이론을 기독교 신앙에 도입하여 신앙적 자아개념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신앙적 자아개념이 일회의 통계분석만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영역이므로 양적인 분석방법에 더하여 면접, 관찰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효과성 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1회의 실험을 실시한 직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효과의 지속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반복측정 연구가 요구된다.

부록 1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계시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 설문지에 기입하신 내용은 순수하게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 문 지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참가번호 : ()번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계급 및 성명은?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 재학 중
 ③ 전문대 졸
 ④ 대학 재학 이상
4. 귀하의 가족 사항은?
 ① 친부모 생존
 ② 친부모 사망
 ③ 편부 혹은 편모
 ④ 부모 이혼
 ⑤ 부모 별거
 ⑥ 양부모
 ⑦ 계부 혹은 계모
 ⑧ 기타
5. 귀하의 신앙경력은?
 ① 1년 이하
 ② 2년 이상 5년 이하
 ③ 5년 이상 10년 이하
 ④ 10년 이상

6. 평소 교회 출석은?

- ①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석한다.
- ② 한 달에 두 번 정도 출석한다.
- ③ 한 달에 세 번 이상 출석한다.
- ④ 거의 출석하지 않는다.

7. 귀하는 현재 군인교회에서 직분(예: 성가대원이나 교사 등)을 맡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8. 귀하는 현재의 군생활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 | 2 | 3 | 4 | 5 |
|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 | | | |

9. 귀하는 현재 기독교 신앙이 군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 | 2 | 3 | 4 | 5 |
|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 | | | |

10. 귀하는 현재 내무실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좋은가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 | 2 | 3 | 4 | 5 |
| <div style="border-top: 1px solid black; width: 100%; position: relative;">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style="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5px; height: 10px;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div> </div> | | | | |

11. 귀하는 현재 부대생활에 만족하나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 | 2 | 3 | 4 | 5 |
| | | | | |

※ 다음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0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1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 | 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3 |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 4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6 |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 1 | 2 | 3 | 4 | 5 |
| 7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8 | 나는 내가 기독교인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9 | 나는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11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좋게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12 |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 13 |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5 |
| 14 |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내가 기독교인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0 | 나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1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한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갖는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봐주기 원하다 | 1 | 2 | 3 | 4 | 5 |
| 25 |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 것이다 | 1 | 2 | 3 | 4 | 5 |
| 26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7 |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8 | 나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29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봐주기 원치 않는다 | 1 | 2 | 3 | 4 | 5 |
| 30 |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지 잘 모르겠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31 | 나는 될 수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2 | 나는 시간을 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3 |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권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4 | 나는 군생활 중 기독교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5 | 나는 전역한 후에도 기독교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 1 | 2 | 3 | 4 | 5 |
| 36 | 나는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7 | 나는 기독교 공부에 시간을 잘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8 |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잘 권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39 | 나는 군 생활 중 기독교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 40 | 나는 전역 후에 기독교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1 | 2 | 3 | 4 | 5 |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강주태, 청년심리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75.
- 강희천, 기독교 교육사상,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_____,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_____, 종교심리와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 고용수, "인간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군인교육," 교육목회, 2000년 봄호, 2000.
- 권이종,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 양서원, 1996.
- 김군진, 조직신학Ⅲ,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 김기태, 군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보이스사, 1985.
- 김득용, 기독교 교육 원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76.
- 김상균, "군인교회의 주일학교," 교육목회, 2000년 봄호, 2000.
- 김애순, 윤진 공저,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9.
- 김영재, 교회와 예배, 서울 :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 김용섭,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고신대학교 논문집, 제 10집, 1982.
- 김종환, 기독교 교육 10월호,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89.
- 노운백, "교회에서의 교육," 침신논집, 1981.
-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한국의 군대와 사회, 서울 : 나남출판, 1994.
- 송인섭,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1998.
-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 민영사, 1997.
- 심상영, 융의 분석심리학, 서울 : 콧줄출판사, 2001.
- 우기식, 문화와 청년선교, 서울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1.
-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대전 : 육군 인쇄창, 1998.
- _____, 군종 업무 시행 지침 / 운영 계획, 대전 : 육군 인쇄창, 2002.
- 은준관, 교회교육의 새로운 이해,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이돈희, 조화태, 교육철학,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1.
- 이동희, 한국 군사 제도론, 서울 : 일조각, 1982.

- 이수원, 심리학, 서울 : 정민사, 1987.
- 이옥경, "자아정체감의 발달 : 청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성신여대 학생생활연구 6호.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4
- 이재운, 군사심리학, 서울 : 집문당, 1997.
- 이홍우, 교육의 개념, 서울 : 문음사, 1994.
- 정원식, 인간과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 정일응, 교육목회학, 서울 :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85.
-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서울 :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 한국 군종 목사단, 좋은군사, 서울 : 쿼란 출판사, 2001.
- 한국 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서원, 1997.
- 홍두승, 한국 군대의 사회학, 서울 : 나남출판, 1996.
- 황원찬, 개혁주의 예배학 총론, 서울 : 도서출판 잠언, 1996.

2 번역서적

- Bavinck, J. H. 기독교 선교와 세계 문화 (The Impact of christianity non-christian world), 권순태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7.
- Chandapilla, P. T. 예수님의 제자훈련 (Master : trainer) 신재구 역, 서울 : 한국기독교 학생회, 1988.
- Clyde Reide, 설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A study in Preaching as Communication), 정장복 역,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5.
- Coleman, J. C. ; Leo Hendry, 청소년은 누구인가 (The nature of adolescence), 남승희 편역, 서울 : 서원, 1993
- Collins, Gary R. 카운셀링 가이드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서울 : 기독교지혜사, 1988.
- Cornelius Jaarsma,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교육철학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k), 정정숙 역,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3.
- Crabb, Lawrence J. 성경적 상담학 (Effective Counseling), 정정숙 역,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9.

- Felker, Donald W.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s), 김기정 역, 서울 : 문음사, 1995.
- Foster, Richard J. 영적훈련과 성장 (Celebrating the disciplines : a journal workbook to accompany 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6.
- Hadley, Donald W. ; Richards, Gerald T. 21세기를 위한 군종교역론 (Ministry With Military) 김영철 역, 서울 : 도서출판 아침, 1986.
- Henrichsen, W.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 네비게이토, 1988.
- Holmes, Arthur F. 기독교 세계관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서울 : 엠마오, 1987.
- Hutcheson, Richard G. 교회와 군선교 (The Churches and the chaplaincy), 박상철 역, 서울 : 실로암, 1988.
- J. J von Allmen, 예배학 원론 (Worship :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용섭 외 3인 공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John MacArthur, 참된 예배 (True Worship), 한화룡 역, 서울 : 두란노 서원, 1986.
- McGavran, D. A. 교회성장학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서울 : 보문출판사, 1982.
- Millard Sall,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Faith, Psychology and Christian Maturity), 김양순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2.
- Niebuhr, H. R.,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 Nizen, E. T. 목회학 원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 성서간행사, 1987.
- Oden, Thomas C. 목회신학 : 교역의 본질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이기춘 역,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1.
- Peters, R. S. 윤리학과 교육 (Ethics and Education), 이홍우 역, 서울 : 교육과학사, 1986.

Russell, Letty M. 기독교 교육의 새 전망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응섭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2.

Wright, Norman 건강한 자아상 (Improving your self-image), 김진숙 역, 서울 : 나침반사, 1983.

3. 외국서적

Apple, Michael W. Ideology and Curriculum, Berkeley : McCutchan Publishing Co., 1975.

Bachman, J. G. "Youth in transition, vol.2,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and intelligence on tenth-grade boys," Ann Arbor, MI: Served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0.

Benson, C. H. The Sunday School in Action, Chicago : The Bible Institute Colportage Association, 1932.

Bowman Jr, Locke E. Analysis and Assessment : The General Protestant Sunday School, Birmingham :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6.

Browning, Robert L. ; Reed, Roy A. The Sacraments in Religious Education and Liturgy

Butler, Donald J.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2.

Byrne, B. M. "The general academic self-concept monological network : A review of construct validation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84

Byrne, H. W.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 Educational Theory and Application, Milford : Mott Media, 1981.

Clark, W. H. The Psychology of Religions,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52.

Eavey, C. B. An Introduction to 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Erikson, F. 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3.

Francis M. Cosgrove Jr. Design For Discipleship, Grand Rapids : Zondervan, 1971.

- Gene, A. G.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Chicago : Moody Press, 1974.
- Groome, Thomas H. Sharing Faith : The Way of Shared Praxis 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 Hilgard, E. R. "Human Motives and Concept of the Self," The American Psychologist 4, 1946.
- Hoekema, A. A. The Christian Looks at Himself Michigan : W. B. Erdmans Publishing Co., 1972.
- Horney, K. Our Inner Conflicts New York: J. A. Norton, 1945.
-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1956.
- James, W. "Principles of Psychology, authorized Unabridged, Vol. 1," Dover Publications Inc., 1950.
- Jürgen Haberma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 Beacon Press, 1976.
- Kaplan, B. H.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1975.
- Kuhne, Gary W.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Grand Rapids : Zondervan, 1982.
- Lasswell, Harold 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 Institute for Religious and Social Studies, 1948.
- Marshall McLuhan and Quentin Fiore,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 Routledge, 1962.
- Michael Gree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Michigan : Grand Rapids, 1980.
- Murray, H. A. Others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8.
- Paul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1970) ; C. Rodriguez, Lifelong Education (Paris : UNESCO, 1972) ; J. Lowe, The Education of Adults : A World Perspective (Paris : UNESCO, 1975).
- Purkey, W. W., Raheim, A. and Cage, B. N. "Self-concept as a learner: Aan

- overlooked part of self-concept theory," Th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1983.
- Raimy, V. C. "Self-Reference in Counseling Interview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48.
- Rogers, C.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61.
- _____.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1.
- Shavelson, R. J., Hubner, J. J. and Stanton, G. C.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6.
- Smart, J.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4.
- Sullivan, H. S.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J. A. Norton, 1953.
- Vieth, Paul 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 United Church Press, 1965.
- Westerhoff, J. H. and William Willimon, Liturgy and Learning Throughout the Life Cycle, New York : Seabury Press, 1980.
- Wyckoff, D. C.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1.

Vita of
Moon Sig Choi

Present Position

Lieutenant Colonel, Republic of Korea Army,
Chaplain,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Korea
Senior Pastor, M.N.D. Chapel

Personal Data

| | |
|---------------|--|
| Birthdate | Apr. 3, 1957. |
| Family Status | Wife and two daughters |
| Home Address | Green Park Apt, #101-902, Sea Binggodong, Yong San Gu, Seoul, Korea |
| Phone | Church (02)795-5382 Home (02)790-7258 |
|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Koshin) |
| Ordained | Feb. 22, 1982. |

Education

| | |
|---------|---|
| B. A. | Feb. 1981, Koshin Theological College |
| M. Div. | Feb. 1984, Korea Theological Seminary |
| D. Min. | June, 2003,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Ministerial Experience

| | |
|------------|---|
| Aug. 1984, | 101th Army Brigade, Chaplain Officer |
| Aug. 1986, | 13th Army Brigade, Chaplain Officer |
| Aug. 1988, | Army Technology School, Staff of Chaplain |
| Feb. 1990, | 7th Army Div, Staff of Chaplain |
| May. 1992, | 1st Army Div, Staff of Chaplain |
| Dec. 1994, | Chief of R.O.K Army, Administration Officer of the Chaplains |
| Mar. 1997, | 8th Army Corps, Staff of Chaplain |
| Aug. 1999, | Army Infantry School, Staff of Chaplain |
| Aug. 2000, | 3rd Army Corps, Staff of Chaplain |
| Nov. 2001, | Staff of Chaplain,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Korea, Senior Pastor, M.N.D. Chapel |